



남가주교협 회장단 이취임예배에서 지난 회기를 섬긴 임원들과 신임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가주교협 신임회장에 박효우 목사 취임

제44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가 1일 오후 4시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려 신임 회장에 박효우 목사가 취임하고 전임 회장 진유철 목사가 이임했다. 또 이 자리에는 박영집 장로에 이어 홍순헌 장로가 취임했다.

박효우 목사는 취임 인사를 전하는 자리에서 “그동안의 교협 사역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노력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겠다”며 “앞으로 한국에 인디언 마을을 만들어서 차세대 인디언들을 교육시키려 하고, 미국에는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지역에 한국관을 세워 나가려고 한다. 또 사모 세미나, 목회자 성지 순례를 추진하려고 하니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진유철 목사는 이임 인사를 전하면

서 “지난 한 해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과 실무진,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 교협의 일이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이사장과 이사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부터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작은 종이 되겠다”고 밝혔다.

예배는 사회 원영호 목사(교협 수석부회장 대행), 기도 강운순 목사(부회장), 성경봉독 지윤성 목사(부회장), 찬양 나성순복음교회 연합성가대, 설교 이정남 목사(증경회장), 특별헌금 송 크리스틴 정, 이임인사 진유철 목사, 교협이 이양식, 취임인사 박효우 목사, 축하영상 및 축사, 기념패 전달, 회장단 소개, 이사회 소개, 광고 박세현 목사(사무총장), 축도 이태환 목사(원로목사회 수석부회장) 순으로 진

행했다.

이날 축하영상 및 축사에 참여한 인사는 김문수 지사(대한민국 경기도지사), 민경엽 목사(OC교협 회장), 석태운 목사(남가주목사회 증경회장) 등이며 서면으로 신연성 총영사(LA총영사), 배무환 회장(LA한인회), 김한길 민주당 대표, 에릭 가세티 LA시장, 김진형 장로(미국정부만인커미셔너 협회 상임고문)가 축사를 보내왔다.

신임회장 박효우 목사는 풍성교회 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제44대 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 제29대, 33대 미국 개혁교단(RCA) 한인교회협의회 전국 총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6월에는 사회 봉사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오바마대통령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토마스 멩 기자

초대받았다. 선교사들만 모여서 그런지, 예배, 간증, 레크리에이션까지 모두 선교에 관한 이야기로 쫓겼다. 음식은 미국의 전통 추수감사절 음식과 한국의 맛갈나는 음식들이 준비됐다. 선교사들의 양손엔 다 들 수 없을 정도의 선물이 들었다.

>> 2면에 계속

기독교회관 건립 위해 3만3천 달러 모금



한미기독교회관 건립을 추진해 왔던 남가주한인목사회 관계자들이 이 사업에 관해 최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정종운 목사(47대 신임회장), 이운영 목사(46대 회장), 백지영 목사(수석부회장), 서준은 목사(부회장).

한미기독교회관 측은 지난 1년 간의 재정을 공개하며 한인교계의 협력과 관심, 기도를 부탁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45대 회장인 김영대 목사가 시작해 46대 회장 이운영 목사까지 목사회가 주도해 오던 이 사업은 현재 3만3천221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사실 이 사업은 시작에서부터 적지 않은 반발에 부딪혔다. 먼저는 친목적 성격이 강한 목사회가 이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충분하냐는 질문이었다. 목사회와 교협 모두 연합단체이지만 목사회는 회칙에서도 “상호 목회 활동을 통하여 복음 사역에 협력하며 이민생활 및 목회 정보와 목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회칙1장4조2항)”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정치단체인 교협과는 성격상 차이가 크다.

게다가 과거에도 남가주 교계가 수차례 추진했다가 좌초된 사업을 목사회가 해 낼 수는 있느냐는 비판도 있었다.

이런 비판들은 45대 당시 기금 모금 일일식당의 결과가 심히 저조하면서 회의론에 빠져 들었다. 총수입 39,246달러 중 행사비용, 광고 비용 등을 제외하고 순수익은 7,369달러로 전체의 19% 수준에 그쳤다. 노력 대비 수익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7,369달러 가운데 그 나머지 마저도 대부분 원로목사 위로 관광 및 각종 목사회 사역에 전용되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목사회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기독교회관 모금액을 사용한 결과였다.

이런 상황에서 46대 회장에 오른 이운영 목사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한미기독교회관(Korean American

Christian Center)이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모금액도 별도로 관리했다. 목사회가 모금을 하지만 자금이 전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한미기독교회관의 주요 임원들도 일단 목사회에서 맡았지만 교협이나 교계 주요 인사, 원로들에게 모두 투명하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 목사는 “이 사업은 목사회가 시작했지만 사실 목사회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계의 지도급 인사들에게 회장, 주요 임원 등 자리를 모두 개방하고 나는 물러날 것이며 뒤에서만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독교 회관 건립 사업이 교계와 한인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고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운영 목사 당시의 목사회가 모금한 금액은 33,221달러로 지난 회기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무려 23,216달러를 남겨 70%의 수익을 거두었다. 총 지출 안에는 비영리단체 설립 비용과 계약 관리비, 각종 홍보 물품 제작비까지 모두 포함되었다.

이 목사는 “지난 회기 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신뢰 받는 목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모금을 위한 활동비도 임원들이 받지 않고 스스로 부담했다. 목사회가 아닌 교계의 사업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의 기독교권을 포기하고 한미기독교회관의 주요 임원 자리도 모두 개방했다. 이제 목사회가 고생해 2만3천 달러의 종자돈을 마련했으니 목사회는 뒤로 물러나고 교계가 연합해 이 사업을 이끌고 가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이 목사는 남가주 교협이나 교계 원로 지도자들에게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 2면에 계속

선교사와 함께 하는 추수감사절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가 매년 특별한 추수감사절을 보낸지 올해로 18년이 됐다. 미국에 안식년을 맞이해 와 있던 선교사들의 “추수감사절이 더 외롭다”는 말에 “우리가 함

께 하자”고 답했던 것이 시작이었다. 선교사라면 자다가도 별떡 일어나고, 빈 주머니도 짹짹 따는 아름다운교회다. 올해도 선교사 약 50가정, 100여 명이 추수감사절에 아름다운교회로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나라정비 ASE CERTIFIED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레이크 12가

제47대 남가주한인목사회 이취임식 예배



이운영 목사 이임회장, 정종운 목사 취임회장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 이사회 및 고문변호사**
- 이 사 장 : 김재권 장로
 - 부 이 사 장 : 박요한 장로
 - 목 사 이 사 : 이정일 목사
 - 장 로 이 사 : 김준배 장로
 - 고문 변호사 : 김운환 변호사
 - 서영석 장로
 - 진교를 목사
 - 이상연 장로
 - 이현숙 변호사
 - 장도원 장로
 - 서상석 집사
 - 규경환 변호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제47대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단 이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고자 하오니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3년 12월 15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한미장로교회
- 주소**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 문의** 회장 정종운 목사 (213)479-9491, 수석부회장 백지영 목사 (323)708-9191, 교회 (213)739-8824

- 회장단**
- 회 장: 정종운 목사
 - 수석부회장: 백지영 목사
 - 부 회 장: 강순영 목사, 박병구 목사, 이철훈 목사
 - 총 무: 김관진 목사
 - 부 총 무: 이흥현 목사, 정충일 목사
 - 고재원 목사
 - 서요한 목사
 - 정요한 목사
 - 김선국 목사
 - 서중은 목사
 - 진석호 목사
 - 김영석 목사
 - 석종규 목사
 - 김원일 목사
 - 이규보 목사
 - 이우형 목사
 - 회 계: 최명상 목사
 - 부 회 계: 이완재 목사
 - 감 사: 김남을 목사

- 분과위원회**
- 교육분과위원장: 김 호 목사
 - 복지분과위원장: 엄규서 목사
 - 신학분과위원장: 박두현 목사
 - 여성분과위원장: 강지원 목사
 - 원로분과위원장: 이태환 목사
 - 장애분과위원장: 오진형 목사
 - 청소년분과위원장: 썬니킴 목사
 - 친교분과위원장: 나주옥 목사
 - 의료분과위원장: 김인철 목사
 - 교경분과위원장: 이종재 목사
 - 선교분과위원장: 김경일 목사
 - 언론분과위원장: 최선호 목사
 - 예배분과위원장: 백정현 목사
 - 음악분과위원장: 백경환 목사
 - 전도분과위원장: 한기만 목사
 - 체육분과위원장: 박후식 목사
 - 홍보분과위원장: 남철우 목사
 - 목회자사모분과위원장: 김순옥 목사



아름다운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선교사들을 초청했다. 고승희 담임목사가 선교사들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선교사님들! 힘내세요!” 추수감사절 잔치

» 1면으로부터 수백 달러에 달하는 건강검진권도 선물에 포함됐으며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장난감 등 그들만을 위한 선물이 준비됐다. 올해는 특별히 중국인 목회자 15명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추수감사절이 되기 열흘 전, 아름다운교회는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미국교회 및 기독교 기관 탐방, 영성 및 기도 세미나, 창조과학 여행 등 리더십 컨퍼

런스를 열었다. 중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미국교회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급성장 중인 중국교회의 리더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일련의 행사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행사는 미국의 감사 신앙을 되새기게 함과 동시에 한인 선교사들과도 네트워크를 맺어주는 기회가 됐다. 물론 이 모든 행사가 쉽지는 않았

다. 그러나 100명이 훨씬 넘는 선교사나 중국인 목회자들을 연휴 동안 섬기는 것에 아름다운교회는 힘든 기색보다 오히려 신난 모습이다. 13번째 추수감사절 행사에 참여했다는 김필현 안수집사는 “추수감사절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는 날로 아예 자리잡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추수감사절을 가장 추수감사절답게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기독교 회관 건립에 교계 참여 요청

» 1면으로부터 이 모금에는 전 회장인 김영대 목사가 5천 달러를 기탁했으며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가 1500달러, 나성열린문교회(박현성 목사)가 2천 달러,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가 5250달러,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가 1500달러, 또감사교회(최경욱 목사)가 3천 달러, 주안예교회(최혁 목사)가 5천 달러, 한미장로교회(이운영 목사)가 990달러 등을 기탁했다. 또 올림피아장로교회(정장수 목사), 한우리장로교회(김지원 목사), 돌로스교회(황의정 목사), 성재대복음선교회(박병구 목사), 창대교회(이준준 목사) 등도 참여했다.

특히 원로목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모금에 동참해 1270달러를 기탁하기도 하는 등 총 30여 교회 및 단체가 참여했다. 짧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재정을 확보하긴 했지만 “기독교 회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나 교계적 합의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지적에 이운영 목사는 “그동안은 안된다, 믿을 수 없다는 여론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 이 사업은 가능성을 확인했고 여러 교회와 목회자들의 참여를 얻어냈다. 전교계로 확대되면 인건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답했다. 김준형 기자

미주장신대 후원의 손길 잇따라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가 36주년 기념 감사 예배 및 후원의 밤을 최근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성황리에 연 가운데,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주장신대는 “지난 21일에 해외 한인장로회(KPCA) 여성교회 임원들이 학교를 방문해 발전기금으로 3000불을 후원했고, 차후 5000불을 더 후원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후원의 밤의 자리에서 이상명 총장은 “양질의 신학교육을 통해 전세계를 향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1세대 1.5세대, 2세대 함께하는 신학교로 발전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비전을 성취하며 앞장서 나가겠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힌 바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선한청지기교회 평신도 선교사 파송예배



송병주 담임목사가 선교사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23주년을 맞는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목사)가 6번째 평신도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1일 주일3부 파송예배에서 “이음은 사부일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송병주 목사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자식을 낳는 것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했다”며 “조성규, 조인숙 선교사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 영적인 부모가 되고 스승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예배에서는 선한청지기교회와 크리스천 기업인 비즈포스트(대표 존

김)가 파송증을 각각 전달했다. 이어 전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규 선교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비즈포스트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다. 존 김 대표는 “너무도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조 선교사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오렌지카운티목사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참석한 목사회 임원진 및 회원들. 앞줄 좌측 세번째가 김영찬 신임회장.

OC목사회 신임회장에 김영찬 목사

2013년 오렌지카운티(OC)목사회 정기총회가 25일(월) 오전 10시에 북음루터교회(문헌봉 목사)에서 열리고, 신임회장에 김영찬 목사를 인준했다. 김영찬 목사(효사랑선교회)는 인

사하는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 전 임 임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은 미자립교회에 물질과 찬양과 봉사로서 후원하려고 한다. 열심히 섬겨서 목사회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OC목사회 사역으로는 2월 11일 성경 전체 개관 암송 세미나, 5월 4일 멕시코 티화나 단기선교, 6월 사모 축복의 밤, 8월 목회자아버지학교, 9월 목회자 영상설교 세미나 등이 있다. 토마스 맹 기자

VISIONDRIVE HD BLACK BOX

SF코딩으로 더욱 더 고급스러워진 HD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전후방 또는 실내를 항시녹화

영상 보정 기능으로 정확한 영상 분석/LCD 영상 재생 / 확대보기 기능

고성능 GPS 센서 내장/ 속도, 위치, 시간, 방향까지 확인

Battery 방전 방지 시스템

구입문의 : **Joseph Park** 213.235.7836
www.carblackboxstore.com 310.902.3944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H.R.3590 Religious Exemption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CMM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단체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미국 국민과 합법적인 거주자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건강보험이나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Aid)는 오바마케어 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전국에 4개 뿐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오바마케어 크리스천 벌금면제 플랜) 중 하나이며 유일한 한인 단체입니다.

CMM 플랜의 특징 및 장점

- ▶ 성경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플랜입니다.
- ▶ 한국(선교지)에서 사용한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 ▶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모든 의사나 병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크리스천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수입과 신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의료비 혜택 내용	예방검진 치료를 위한 검사비 수술 및 입원비	치료를 위한 검사비 수술 및 입원비	수술 및 입원비	수술 및 입원비
1 unit (1인)	\$ 175	\$ 135	\$ 80	\$ 40
2 units (2인)	\$ 325	\$ 260	\$ 160	\$ 80
3 units (3인 이상)	\$ 425	\$ 385	\$ 240	\$ 120
본인부담금 (1인 기준)	\$ 500 / Year	\$ 500 / Incident	\$ 1,000 / Incident	\$ 5,000 / Incident
질병당 의료비지원한도 (브라더스키퍼 가입)	unlimited	unlimited	질병당 최고 \$1,000,000	질병당 최고 \$1,000,000

전국적으로 20만 크리스천 가정과 단체는 건강보험대신 의료비나눔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전화 **213-700-9212** 문의 **www.christianmutual.org**

CMM은 건강보험회사가 아니며, H.R.3590 Religious Exemption에 의한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입니다.

OC교협 각종 사역 성공적 마무리...민경업 회장 유임

제23차 총회서 민경업 목사 “작은 교회와 다민족교회 연합에 내년 사역 집중할 것”

민경업 목사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유임되고 제23대 OC교협을 섬기게 됐다.

OC교협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에서 회원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2대 회장을 섬긴 민경업 목사(나침반교회)를 다시 23대 회장으로, 손병렬 목사(남가주동신교회)를 수석부회장으로 인준했다.

민경업 목사는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다음 1년 동안 무엇이 도움이 될까 스스로 생각해 봤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목사님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1년 더 유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열심히 섬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 목사는 내년 핵심 사업으로 △작은 교회를 돕는 사역 △다민족 교회(한·중·일 등) 협력 사역 △연합사역 등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민 목사는 “20여명 등이 모이는 교회들을 교협에 가입하게 해 연합을 도모할 것이고,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한국·중국·일본 등의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부회장단에 송규식·윤덕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가 총회를 열고 회장에 민경업 목사를 유임시키고 수석부회장에 손병렬 목사를 뽑았다.

곤·민승기·김기동 목사 등이 인준됐다.

OC교협은 올해 남가주교협 및 한인 단체들과 사랑의 쌀 나눔운동에 동참하게 되며, 12월 26일 오후 6시에 나침반교회에서 OC교협 취임예배 및 송년모임 등을 준비하고 있다. OC교협은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1월 13일에 OC교협 이취임 감사예배, 2월 16일에 OC지역 기관장 초청 조찬예배, 3월 31일에 OC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공동주관으로 부활절연합새벽예배, 5월 30일에 제3회 사모 블레스 나이트, 8월 18일에 차세대리더 장학금수여식,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잠실신천교회 송용결 목

사를 초청해 영적대각성집회 및 목회자세미나 개최, 10월 17일에 남가주교협과 친선족구대회 등 여러 사역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1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월금액 1547달러 64센트, 2013년 수입 6만7599달러 64센트, 2013년 지출 6만5184달러 88센트 등 차기 이

월금액이 2414달러 76센트이다.

한편, 이날 총회의 설교는 이사장인 박용덕 목사가 “거룩한 것발을 들라”(요 8:29)는 제목으로 했으며, 증경회장인 한기홍 목사가 축도했다. 총회는 증경회장인 정영수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사랑의 쌀 나눔운동” 1차 모금 전달식 진행



올해도 교계가 연합하는 사랑의 쌀 나눔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1차 전달식에 참석한 관계자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제5차 ‘사랑의 쌀 나눔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1차 모금 전달식이 열렸다.

22일 오후 2시 남가주교협(회장 박

효우 목사) 사무실에서 진행된 모금 전달식에는 남가주호남향우회, 미주한인사업가협회, LA서울라이온스클럽, KCCD, LA노인회, 예수로교회에서 총 2300달러를 운동본부 측에 전

달했다. 운동본부 측에 따르면 나성영락교회 5000불, LA한인회 3000불 등 지금까지 총 1만1200불이 약정되고, 그중 3200불이 입금됐다.

모금 전달식에 참여한 단체장들은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은혜”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에 많은 이들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운동은 남가주교협이 주관하고 LA총영사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한

국일보, 중앙일보, 남가주목사회, OC교협이 공동주최한다. 나눔 대상은 교회 및 사회봉사기관, 생활보호 대상자, 독거노인, 어려운 학생들, 개인 신청자 등으로 총 1만명에게 쌀 1만포 배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후원 문의: (323)735-3000

토마스 맹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완고한 통증(요통, 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 등)의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테바 신교후원회 부설 ·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정 씬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Map showing locations in Lajolla, Fairfax, Wilshire, and Skokie]

한국 아이를 사랑한 백인 목사, 한인교회도 끌어안다

입양한 자녀 키우며 기적 체험... 교회 간 통합 열매까지



게리 바이어스 목사와 정진오 목사

미국 일리노이 주(Illinois) 벨빌(Belleville)에는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시온루터교회(Zion Lutheran Church)가 있다. 교인 수 약 1천여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로, 유치원부터 중학교에 이르는 학교도 운영하고 있는 이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백인이다. 이곳에서 20년째 담임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바이어스 목사(Gary Byers) 목사의 한국 사랑 이야기는 참 유별나다.

바이어스 목사는 결혼 후 1974년 목사 안수를 받고, 미시간주(Michigan) 플린트(Flint)에 있는 루터탄 선교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임신 했고, 첫 아이를 갖게 된다는 기쁨에 행복한 날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Kathy)가 두 번의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수술에서 바이어스 목사는 첫 아이를 잃었다. 그리고 담당의사는 바이어스 목사 부부에게 앞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갓 결혼한 바이어스 목사 부부에게 이 소식은 천천백과도 같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기에, 바이어스 목사 부부는 입양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이를 입양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입양을 알선하는 기관도 거의 없었고, 복잡한 서류 절차로 인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다 사회복지센터에서 7살 된 한국 여자아이를 소개받았다. 그 여자아이는 원래 미네소타 사회복지센터를 통해 4살 때 백인 아

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가정에서 입양된 아이였다. 그러나 3년 후 아이는 그들 부부에 의해 다른 집에 버려졌다. 그래서 다들 그 아이 입양을 꺼리고 있을 때, 바이어스 목사는 기꺼이 입양을 결심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에리카(Erika)라고 지었다.

바이어스 목사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된 우리에게 7살 된 아이는 여러 면에서 도전과 어려움이었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아이의 학교 학부모 모임에 가도 우리 부부가 가장 젊은 부부였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바이어스 목사 부부는 자신의 친딸처럼 사랑과 은혜로 아이를 양육했다. 한국식 밥과 문어를 좋아하는 아이를 위해 직접 한국 음식을 배우기도 했다. 시간이 갈수록 에리카도 아픈 과거를 잊고 바이어스 목사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바이어스 목사 부부의 이런 희생적 사랑과 헌신에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 하듯 큰 선물을 주셨다. 에리카가 집에 온 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바이어스 목사의 아내가 임신 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임신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나님께서는 한국 아이 에리카를 통해 도저히 믿기지 않은 기적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첫 아이를 출산한 뒤로 의사는 기적과 같은 이 일에 놀라면서도, 또 다시 임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었다. 하지만 아이를 더 갖기 원했던 아내의 소원으로 또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 1978년 10월 미시간주 지역 사회복지센터를 통해 바이어스 목사 부부는 한국에서 온 남자아이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를 처음 공항에서 만나기 전날, 바이어스 목사 부부는 매우 흥분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날 같이 긴 밤을 경험하지 못했다. 1978년 12월 14일에 바이어스 목사 부부는 시카고 국제공항에서 한국 남자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고, 그를 나단(Nathan)이라 이름 지었다.

한국 남자아이 나단을 입양한 후, 바이어스 목사 부부는 일리노이 주로 목회 사역을 옮기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입양한 한국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다. 주위에 입양 가족이 거의 없는 데다가 백인들이 주를 이루는 지역에서, 바이어스 목사 부부가 입양한 한국 아이들은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으로 비쳤다. 그럼에도 그들은 두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도록 정성으로 보살폈다. 그 사랑에 하나님도 감동하신 것일까? 그곳에서 바이어스 목사는 또 기적을 체험했다. 아내가 두 번의 임신을 통해 두 명의 여자아이를 더 낳게 된 것이다.

한 번도 한국에 가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두 한국 아이를 통해 바이어스 목사 부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이를 계기로 그들 부부는 유독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 부부의 한국 사랑은 가정 뿐 아니라 그의 목회 사역에서도 나타났다. 1992년 지금의 시온루터교회 담임목사로 섬기면서, 약 20여년 전, 지금은 작고한 고 지원용 박사를 통해 시작된 한인교회가 마땅히 예배할 곳을 찾지 못해 고민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꺼이 미국교회 안에 한국인 예배실과 사무실을 무료로 내어주었다.

백인 중심인 교회에서 한인교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바이어스 목사는 미국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함께 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고, 교우들도 한국 아이까지 입양하여 키운 목회자의 한국 사랑에 감동하여, 기꺼이 미국교회 안에서 한인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다.

은퇴를 1년 앞둔 2013년 11월, 바이어스 목사는 한인교회를 위해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을 한다. 시온루터교회가 한인교회를 미국교회의 정식 멤버로 인정하고, 한인 담임 목회자를 미국 시온교회 부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한인 목회자에게 미국 목회자와 똑같은 혜택을 부

여하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결정된 것이다. 마침내 미국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정진오 목사를 한인교회를 담당할 미국교회 부목사로 청빙하게 되었다.

이는 미 전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뿐더러, 꽤 보수적으로 알려진 미국 루터교회(LCMS)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이면에는 한국 아이들을 입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한국 사랑에 남다른 바이어스 목사 부부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시온루터교회의 첫 부목사로 부임하게 된 정진오 목사는 “한국인으로서 미국교회 부목사로 사역한다는 것이 여러 면에서 도전일 수 있지만, 성령께서 다른 언어와 다른 피부를 가진 우리를 서로 하나로 만들어 가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바이어스 목사는 “지나간 시간의 삶을 돌아 볼 때, 제 삶에 도전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게 즐거움이었고 기적이었다. 그 기적 중에 하나는 제 가정이 한국인 자녀와 더불어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고, 제가 섬긴 시온루터교회가 한인교회와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신태진 기자



게리 바이어스 목사 가족, 입양한 한국인 자녀 둘과 친제자 둘에서 지금은 대가족이 되었다. 바이어스 목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한국 사랑은 교회에까지 전해졌다.

HEAVEN EARTH TRADING Import & Wholesale

213)386-3585

SANSAM 산삼(인디언이캔야생산삼) 모든 건강식품
매실/홍삼제품 한약제품
Vitamin 각종 즙

(LA 한남체인내)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제 6기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수강생 모집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5기 생 교육을 무사히 완료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명으로 시작한 의료 선교사 육성 사업은 축복 가운데 6기 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수기치료 의료선교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본 재단에서만 시행하는 교육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손 하나만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치료술을 교육하며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수료가 끝난 의료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불모지에서 치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게 되며 이웃을 위한 의료봉사에 임하시게 됩니다.

<모집 안내>

응모 자격 : 하나님을 영접하신 분으로 선교의 사명이 투철하신 남녀 성도 분

모집 대상 :

- 목회자 또는 선교사 (해외파송 희망 선교사)
- 평신도로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시고 의료선교사로서 사역을 원하시는 분
- 수기 치료술을 배워 단기 선교나 의료 봉사를 원하시는 분

모집 인원 : LA 지역 남녀 20명 / Orange County 지역 : 남녀 20명 (교육의 향상을 위해 인원을 제한함을 양해 바랍니다)

교육 기간 : 총 20주 (매주 2회 , 2시간 교육)
LA지역 : 화요일, 목요일 교육 / OC지역 : 금요일, 일요일 교육

교육 장소 : LA지역 1543 W, Olympic Blvd, Suite 505, LA CA 90015 (성박사시시 건물)
OC지역 8102 - 2 Garden Grove

수료 후 특전 :

- 선교사 수료증 및 자격증 수여, 파송 선교지 추천 및 재정 지원
- 부부가 수강 신청 시 한 분은 청강생으로 수강료 면제 합니다.

교육 내용 : 근육 통증 전문 치료술

- 근육 교정학 : 통증을 전문 치료하는 의술.
- 체형 교정학 : 변형된 체형을 교정하는 의술.
- 척추 교정학 : 바른 척추를 만들어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의술
- 영양 물리학 : 식품의 음양과 인체의 음양 (자연식의 원리)

교육의 특성 :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교육은 약품이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만을 사용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의술로서 한의학, 카이로 프랙틱, 근육전문 치료학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하여 완벽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술로서 단기간에 완성된 의료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개강 일자 : 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접수 마감 : 2013년 12월 7일 (토요일)

접수처 : 세계 의료 선교사 육성 재단
213) 381-7273 213) 605-2928

교육 강사 : 박승부 장로 (Dr. Charlie Park)
수기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전 국제 대체의학 전문대 학장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히브리서 3:1-1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제각기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기대와 목적 그 자체도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본문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쓴 것은 교회 등록하고 출입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을 하늘나라 영광의 후사로 천국을 물려주시기 위한 상속 받을 대상으로 택하시고 불러들이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실 것이고 또 성령의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해 주실 것이며 그가 회개의 성령에 의지해서 회개하게 되지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그간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지옥 길에 시달렸던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파송된 성령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오로지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할 때에는 순종하게 되어 있고, 겸손하여 끝까지 따르게 될 때에 그 성령이 책임지고 하늘나라까지 데려가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관에 의한 구원의 교리인 것입니다.

1. 믿음의 시작 -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한 회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 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대속의 은혜, 그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분위기에 어울리며 휩쓸려서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에 간절한 믿음도 없이 그저 교회만 열심히 들락거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해 주심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지전능하심에 두려워서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잘못 산 지난날들의 불신앙의 죄악을 용서받자고 회개할 서두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없어도 이와 같은 성령으로 회개케 하심의 과정이 없었고 진심으로 회개한 일이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 없는 지옥 갈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교회의 목자를 통한 성령의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회개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어지게 하는 믿음의 진실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갈 불안도 두려움도 없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살았던 지난 세월들이 부

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매달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럴 때에 신앙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 믿음의 뿌리는 아는 것만큼 깊어지기 때문에 세상 마귀가 어떤 형태로 위협하고 환난 풍파로 힘들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거나 동요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얇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기 형편과 입장에 맞는 척 했는데, 교회에서나 선교를 통하여 교회로부터 자기에게 부담이 되면 금방 믿음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은 회개하던 그 시간부터 확실한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의 존재와 역할에 대하여 깊이 깨달아졌고 또 깨달아진 만큼 깊이 믿어지기 때문에 시작한 믿음은 끝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2. 믿음생활의 4가지 과정

이 신앙생활은 네 가지 과정에 변함없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깊이 알아보게 되는 신지식(God Knowledge)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보게 되고 믿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약속하고 증거하는 내세소망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소망적인 믿음을 생활 속에서 입체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시작할 때부터 확실한 진리의 기대감을 갖고 그 진리가 증거하는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육신이 원했던 세상 조건은 포기하고 영원하고도 신령한 내세의 소망을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믿음과 기도로 전도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목적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영광스런 자격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 모시고 영생복락을 누리겠다고 생각하고 증거했다면,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늘소망의 신령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처럼 날마다 생활로 엮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생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지옥 갈 죄인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마태복음 20:28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히 깨달은 보배로운 진리, 성령의 계시와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았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진리의 약속대로 하늘의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의 기쁨에 젖어 사는 모습을 모

든 주변사람들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날마다 이 신령한 소망의 기쁨을 위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신앙고백이 입술의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한 믿음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3. 믿음의 표증 - 기쁨과 내세의 소망자랑

2절을 보면 예수님과 모세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예수님과 그의 존재와 자기에 대한 비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참 교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자기 생애를 수모와 고통 가운데 횡포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기까지 어떤 고난도, 죽임당하심도 전혀 주저하시거나 망설임 없이 항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다한 사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는 출애굽을 하면서 시작된 광야교회를 말합니다. 그 광야교회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할 자격자들을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속에 있었던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집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교회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세웠고 그 광야교회를 영적인 교회로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애원하고 책망하고, 처벌해 가면서 이끌어 왔으나 불행하게도 40년 세월에 모세의 목회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천국가는 노정에 대하여 구약에 있었던 모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3:7-8에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

신 비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지 말라" 합니다.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 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십니다.

성령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쫓겨와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갖추라고 목사 모세를 세워서 일러 주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던 그들은 광야에서 땅이 입을 벌리게 하고 한꺼번에 생애장을 시킨 일도 있었습니다.(민16:25-34)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이 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속도 없지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철저하시고 완벽하신만큼 상선벌악(賞善罰惡)의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령하고도 영원한 영생복락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들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해 오더라도 더 낫고 영구한 하늘의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혹도 위협도 횡포도 뿌리치며 믿음과 기도로 타개하며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 것은 내세의 소망에 대한 믿어지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자랑하고 증거하라" 이것이 간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누리고 있는 영적인 세간의 신령한 소망의 기쁨과 만족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간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세의 소망의 확신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자랑했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입으로 증거한 만큼 생활에 걸맞는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30분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LA 미주 북음방송
기독일보	5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성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_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깊은 바다에서 소원의 항구로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2011년 3월에 있었던 일본의 쓰나미는 일본경시청 보고에 의하면 15,878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내었고, 원전의 파괴로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바다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폭풍우가 일어나는 바다는 인간의 능력이 지극히 확장된 이 시대에도 손을 쓰기 어려운 공포입니다. 더욱이 사람이 만든 작은 배가 산과 같이 몰려오는 파도에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같이 항공모함을 만들고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 풍량이 이는 파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게 된 때라라도, 바다는 여전히 주의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광풍으로 바닷물이 일어나고, 배에 탄 사람들이 하늘로 높이 치솟았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 그들의 마음은 녹아 버렸고, 그들의 모든 직각은 혼돈 속을 헤매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고, 배 안을 이리저리 굴러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사 107:25-27). 폭풍우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

항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므로 바다를 다스리시고, 혼돈의 깊은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물을 드러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과시키셨고, 요단강을 갈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바다의 큰 광풍을 잠잠하게 하여 고요하게 하시고 기뻐함과 평온함 중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곧 질망의 바다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013년에도 세상 풍파로 수고와 고생이 많으셨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눈물과 한숨과 갈등과 사랑과 꿈과 기쁨이 범벅이 된 고난의 바다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광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은 우리를 깊은 바다에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인생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는 물을 궁

인생=일생



김세환 목사
LA한인연합감리교회

누구나 인생을 한 번 삽니다. 한 번 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 밖에 살지 못하니 “경험”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실수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뿐이기 때문입니다. “철이 들었다”는 말은 “인생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호기(豪氣)를 부린단든지, 자신만만하게 덤벼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코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몰락과 대역전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는 순간까지 영원한 철부지들의 향연입니다.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좀 다르게 살고 싶다”고 막연하게 너스레를 떠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생은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어설르게 윤회(輪廻)를 이야기하고, 환생(還生)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을 하는 순간, 그 즉시 “지금”은 “과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한 순간도 나의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순간 순간을 열심히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중한 “금”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입니다. 황금은 황금만능(黃金萬能)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보물입니다. 또, 소금도 한 때는 노동자들의 급료로 지급될 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금입니다.

모든 일을 지금 담당하는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인생은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뒤달라하는 것도 허망한 짓입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살아야 합니다.

순간 순간 살아내는 “지금”들이 모인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고향의 정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한인교회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고향의 정을 떨칠 수가 없어 최근 한국에 나가 굶주렸던 정을 마음껏 채우고 한 달 만에 돌아왔다. 부요하다는 미국에서 오랜 세월 살아오던 따뜻한 고향의 정을 이곳에서 찾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만 있는 문제일까?

서양 문화에서는 손님이 오면 가까운 호텔에 묵게 하거나 또는 자기집 게스트룸에 머물게 하며 며칠 같이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안방을 내주고 주인은 사랑방으로 옮겨가는 옛 풍습이 오늘날도 살아있다. 믿음 안에서 형제처럼 지내는 김OO 집사 부부는 자기들의 안방을 우리 부부에게 내주었다. 몇 년 전에도 같이 사는 외아들을 아파트 게스트룸으로 보내고는 자기들이 아들방으로 가고 우리에게 안방을 내주더니 이번에도 역시 그러했다. 그것도 한 달이나 말이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직접 운전해서 아름다운 단풍 구경을 시켜주며 가는 곳마다 그곳의 토속 음식을 함께 먹었는데 그 맛은 어머니 손맛의 건강식이었다. 또한 그 지역의 유적지나 토산물을 볼 수 있어서 책에서 못 배운 것을 새로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한 번 친해지면 오래 지속되는 것이 한국인의 멋이 아닐까!

우리 부부가 온다는 소식을 접한 옛 교인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많은 분들과 정을 나누고 식사 대접도 풍성히 받고 구경도 많이 했다. 그 중에도 유난히 주기를 좋아하는 이OO 집사가 준 책을 집에 와서 열어보니 돈 부투

를 받고 전화를 걸었다. 찬송가가 나온다.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 이 임무가 끝나는 내일 사무실에 와서 꼭 기도해 달라는 간청이다. 그의 방 중앙에는 십자가가 높이 달려있고 책상 위에는 자신이 부른 찬송가가 CD로 되어 쌓여있어 오는 방문객들에게 나누어 준단다. 그가 출판한 책 “꿈, 나를 이끌다”는 신앙의 간증서이다. 나는 그와 그의 아내와 함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흥수 때 천지가 물로 가득 찼으나 정작 마실 물은 귀하였 듯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을 못 믿는 현 시점에 이 의원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졸랐다. 나는 이 부부를 믿는다. 전에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철저한 국가관으로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들었고 큰 인물이 되겠다고 느꼈다.

사실 내가 고향에 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옛 친구의 방문안이었다. 춘천에 새로 창립된 학교에 내가 소개해서 평교사로 들어간 그는 40년을 봉직하다 교장을 지내고 은퇴를 했다. 얼마 전 암에 걸려 3번이나 수술을 했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기력이 떨어져 치료 못하는 85세의 친구. 그와 하루 밤이라도 같이 지내고 싶어서 찾았다. 43kg의 몸무게, 소파에 몸을 맡기고 힘들어 하던 친구가 나를 만나자 새 힘이 생겨 마치 다른 사람같았다. 이런 우정이 한국인의 끈끈한 정이 아닐까!

사랑이 담백 담긴 따뜻한 정을 미국 땅에서도 서로 나누며 살고 싶다.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 대회

장애우 사랑교회에서 1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라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경연회를 엮습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 봉사, 마음, 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매시간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06 S. Bonnie Brae St. L.A., CA90057	그랜드 파크 양로병원 Grand Park Convalescent Hospital 2312 W. 8th St. Los Angeles, CA, 90057
1차 찬양대회: 2013년 6월15일 토요일 오전10시	부활절 예배: 2013년3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2차 찬양대회: 2013년 12월21일 토요일 오전10시	추수감사절예배: 2013년11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성탄절 예배: 2013년12월20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 봉사자들을 구합니다 ■■■■

협찬 남가주 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 목사회, 영애 사랑교회, 믿음의 은사를 전하는 선교교회, 데이비 백 병회사 그룹, 미동원 변호사 그룹, 카주 잉크로벨, Lahenco, Inc, 세일러 저동터, 남가주 향토도도단체,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 사랑교회 T. 213-705-0404 F. 213-251-8930 P.O.Box 742017 LA., CA90004

세계 최초! 최대! 음이온 매트 초강력 음이온 매트!

닥터-니온스 초당 850만개 영구적 음이온 생산

Dr-NIONZ™ DOCTOR NEGATIVE ION ZONE

세계 최고 신비의 음이온 실리온 매트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하여 혈액순환을 높여줌
● 운동 원치 및 면역력을 강화함
●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함
● 피로회복과 집중력을 높여줌
● 1 초당 850만개의 음이온이 지속 영구적 생산되어 숨이나 복호수보다 많은 음이온을 제공합니다.

\$99 LARGE

100% Non-Toxic / Allergy Free Silicone / Washable

Dr-NIONZ™ Tourmaline Mat Generates 0.06 mA & FIR Far Infrared Rays
● Approximately 3,000 negative ions per cubic centimeter per second.
● Total generates over 8.5 million negative ions per second.

Dr-NIONZ™ Daily health benefits:
● deep sleep ● backache & shoulder ● whiplash & TMJ ● leg cramps ● foot & ankle pain ● muscle cramp ● backache

숲속의 숙면

고가제품의 각종 건강 매트에서 효험을 못보신분.
Dr-NIONZ로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세요.

1.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짐
2. 심하게 코고는 분 70~80% 감소 효과
3. 잠못자서 항상 피곤하신 분 숙면으로 단잠
4. 호흡 곤란으로 힘드신 분 편안해집니다
5. 전립선으로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 확실한 효과
6. 피곤함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정신 노동 하시는 분에게 크게 도움을 줌
7. 귀취한 냄새를 제거해 줍니다
8. 스트레스나 통증 완화에 도움을 드립니다

히트 상품!

Dr-NIONZ™ DOCTOR NEGATIVE ION ZONE

세계 최고 신비음 이온 매트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하여 혈액순환을 높여줌
● 운동 원치 및 면역력을 강화함
●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함
● 피로회복과 집중력을 높여줌
● 1 초당 850만개의 음이온이 지속 영구적 생산되어 숨이나 복호수보다 많은 음이온을 제공합니다.

\$60 MINI

100% Non-Toxic / Allergy Free Silicone / Washable

Dr-NIONZ™ Provides more negative ions than a forest or waterfall.
● Dr-NIONZ™ Tourmaline Mat Generates 0.06 mA & FIR Far Infrared Rays.
● Approximately 3,000 Negative Ions Per Cubic Centimeter Per Second.
● Total Generates Over 4.5 Million Negative Ions Per Second.

Dr-NIONZ™ Daily health benefits:
● deep sleep ● backache & shoulder ● whiplash & TMJ ● leg cramps ● foot & ankle pain ● muscle cramp ● backache

Dr-Nionz 매트는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여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항상 시킵니다.
진드기, 곰팡이, 알레르기를 제거하는 닥터 니온스의 음이온 매트로 숙면을 즐기세요!!

무독성. 무취. 부작용 없음. 최고급 음이온 팔찌의 150배 음이온 발생
단 한번 구입 \$60 / \$99 평생 50년 이상 사용하실 수 있는 음이온 매트.

닥터-니온스의 강력한 음이온은 탁한 혈액을 맑게하며 혈관과 실핏줄을 확장시킴으로써, 혈액 순환을 높여줍니다.
엔돌핀과 NK 세포를 내보내도록 도움을 주며 암 예방과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산성화된 체질을 약 알칼리화 하는데 도움을 주며 심근경색, 치매, 중풍과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닥터-니온스의 강력한 음이온 매트 사용은 자연 숲 속이나 폭포수에서 숙면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후기

- Dr-Nionz 사용한 날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숙면을 취하고 자궁수축과 호흡이 편해졌습니다. (사용 2개월, 여) 60대 초반 김정은
- 많은 건강 매트를 사용해 보았지만 이렇게 효능있는 확실한 제품은 처음입니다. 전립선 때문에 잠자는 동안 화장실을 다섯 여섯번씩 다녔지만 지금은 한 두번정도. 잠자리와 호흡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사용 1주일, 남) 70세 정재용
- 손자가 코를 심하게 골아 잠을 잘못 잤는데 Dr-Nionz 사용후 코를 아주 적게 골며 잠을 잘 잤다. (사용 1주일, 여) 80세 복포 할머니
- 아내가 밤이면 네다섯번 잠 깨 숙면을 취하지 못했는데, 이젠 폭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공을 차다 허리를 약간 다쳤는데 Dr-Nionz 을 사용한 다음날 바로 숙면과 함께 허리가 나아졌습니다. (사용 2달, 남) 50대 글렌데일 브래드
- Dr-Nionz 사용한 날부터 심하게 골던 코가 80% 정도 감소하고 숙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2달, 남) L.A David Lee
- 아내가 밤이면 종아리에 쥐가 자주나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던 중 Dr-Nionz 매트 사용후 쥐 나는 것에서 해방되어 아주 기쁘고 보너스로 코고는 것도 많이 감소하였으며 본인은 숙면을 취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 되었습니다. (사용 2달, 남) L.A 고윤기
- 추천 1: 음이온**이 가장 많이 나오는 Dr-Nionz 매트로 일주일 정도 사용 하였는데 숙면도 되고 만성 피로도 점점 좋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Dr-Nionz 추천합니다. (한의사 원장 이은희)
- 추천 2: 현대인**이엔 음이온이 부족하여 스트레스와 불안 불면 그리고 치매 중풍 뇌졸중등의 치명적인 병이 많아졌습니다. 초강력 음이온 Dr-Nionz 의 음이온 자연 자유 법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에 강력 추천합니다. (한의학 박사 원장 조재범)

그동안 수많은 음이온 제품들이 있었으나, 그 효과를 보신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존의 (팔찌, 매트, 벨트, 팬티, 여성 속옷 (브라 or 코르셋) 음이온 생리대 등 음이온 발생량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그 좋은 음이온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무료로 음이온 제품들을 측정해 드립니다.**

니온스 음이온 팔찌

업계 최고의 품질 보증!

강력한 음이온 방출
최초 3D 입체형 디자인

\$20 ONE 팔찌 **\$22 양편 (TWO TONS) 팔찌**

11 컬러 3 사이즈

1. 최고 수치의 음이온 방출.
2. 입체형으로 통풍이 잘 되며 습하지 않고 가볍지 않은 차별화된 디자인
3. 포장 법을 준수하여 과대 포장을 하지 않고 소비자를 위하여 가격을 확실하게 낮추었습니다.

카멜레온 신비의 음이온 핸들커버

강력 음이온 팔찌보다 32배 음이온 방출!

COMFORT POWER GRIP

\$30

세계 최초 특허품
이런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 졸음 운전을 자주하시는 분
- 운전중 피곤하신 분
- 어깨나 팔이 아프신 분
- 손 관절로 인하여 아프신 분
- 차에 찌든, 담배 냄새 제거
- 운전중 집중력 강화

안전 운전자의 필수품!

5 year WARRANTY 명품 FUJITA 만의 강력한 특성!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됨

전자파 없는 원적외선 온열시스템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최고!
면역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Heating

양 팔과 양 발을 동시에 지압

3단 강약 조절을 선택할 수 있음!

Zero Gravity

머리 뒷골 및 머리 안마를 시원하게 함

세계 유일의 머리 안마 시스템!
후지타만의 완벽한 기능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 교정에 최고!

에어 전신 스윙 안마

세계 유일한 발바닥 롤러 마사지 시스템

발바닥이 무척 시원해요!

전문 타이 스트레칭!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차별화된 안마에 대만족!

환상적 어깨 3 회 10초씩
허리 3회 60초씩

7~8 천불 상당의 타사 마사지체어와 비교 해 보세요!!

품질은 최고, 가격은 정직한 절반값!! Reg. \$6,499.00

FUJITA

KN9003 / 2013 최신행!
BEST SELLER! 소비자 만족 1위

★★★★★

1

SALE

\$4,200 +Tax

목회자 주택비 면세 혜택 위한 판결에 교계 충격

목회자의 영적 기여 간과... 목회자에 대한 반감도 느껴져

연방 법원이 1954년 제정된 목회자의 주택 비용 면세 혜택을 위한이 판결했다. 전국적 규모로 반기독교 소송을 이끌고 있는 무신론 단체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의 소송에 법원은 “종교적 활동이라는 특별한 짐을 완화하는 데에 있어서 주택비 면세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남침례회 등은 “소형 교회 목회자에게 큰 타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위스콘신 주 연방 지방법원의 바바라 크랩 판사는 이와

같이 판결했다. 위스콘신 스테이트 저널에 따르면,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은 연방재무장관인 제이콥 루와 국제청장 대니얼 워펠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목회자에게 주택 비용을 보조해 주는데 이것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 급여와 함께 혹은 급여에 포함돼 지급된다. 이에 의회는 목회자의 실제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주택비에 대해서는 면세해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예를 들어, 목회자에게 1년에 4만 달러의 사례비가 지급되는데 그 중 2만 달러가 주택비, 3천 달러가 주택에

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유틸리티 비용이라면, 이 주택비와 유틸리티 비용은 소득세 과세 항목에서 면제되어 목회자는 소득 1만 7천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되는 식이다.

이 판결에서 크랩 판사는 짐 램스태드 미네소타 하원의원의 2002년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 면세 혜택으로 인해 성직자들이 누리게 될 세금 혜택이 23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던 바 있다.

크랩 판사는 “이 혜택의 규모는 법에 분명 헛점이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무부와 국제청 등 피고는 목회자들이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다른 수백만 명의 시민들에 비해 더 힘들다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목회자들만 왜 특권을 누리려 하느냐”는 세간의 지적은 목회자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불분명해 진 결과라 볼 수 있다.

이 소송을 제기한 단체의 공동대표인 로리 게이러 씨는 “교회가 목회자에게 5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2만 달러를 주택비로 책정해 놓아 3만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만 낼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까지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 목회자의 주택비 면세 혜택에 대한 사회의 반감은 결코 적

어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로 꼽히는 엘리베이션교회 스티븐 퍼틱 목사가 1만6천 스퀘어피트 대지에 170만 달러의 집을 건축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이기 때문이다. 이 불경기에 33살의 젊은 목사가 방이 8개 있는 주택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지역 언론들은 난리가 난 바 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인식될 퍼틱 목사의 주택 비용 역시 다른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면세된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문제는 시카고에 있는 제7순회 회소법원으로 올라가 재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김준형 기자

크리스마스 싫어하는 기업에 기독교인 보이콧 운동

AFA, Radio Shack 등 기업 발표

미국의 크리스마스 전쟁에 유명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라디오 Shack(Radio Shack)이 참여하게 됐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가 아닌 할리데이(holiday)로 부르도록 강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립학교에서 예수의 탄생에 관한 캐롤이 금지되는 일, 예수 탄생 조형물들이 무신론자들에게 의해 밀려나는 일, 예수 대신 산타를 칭송하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오늘날 미국은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전쟁 중이다.

라디오 Shack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매년 실시하는 바겐세일 홍보 문구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제거

하기로 결정하자 보수 기독교 단체인 미국가정협회(The American Family Association)는 한달 간 라디오 Shack 보이콧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을 앞두고 라디오 Shack은 신문, 라디오, TV 등 각종 매체에 광고를 쏟아 붓지만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라디오 Shack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미국가정협회는 기독교인들이 라디오 Shack 페이스북에 크리스마스라는 문구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직접 매장을 방문해 매장의 책임자에게도 정중하게 요청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단체는 매년 친 크리스마스 기업과 반 크리스마스 기업을 발표하고 있다. 이 단체가 벌이는 캠페인에는 수만 명이 참여하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 단체가 주도하는 보이콧을 마냥 무시할 수 만은 없다.

크리스마스를 적극 홍보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에이스 하드웨어, 바나나 리퍼블릭, 베드베스 앤 비욘드, 달러 트리, 겐, 할마크, 하비로비, 제이시 페니, 조안 패브릭스, K마트, 크로거, 콜스, 메이시스, 노드스트롬, 올드네이비, 오피스맥스, 샘스클럽, 시어스, 타겟, 월마트 등이다.

반대 기업은 반스앤노블, 패밀리 달러, 오피스디포, 스타이플스, 빅토리아 시크릿 등이다. 김준형 기자

코스트코 매장, “성경은 소설?”

본사 측, 논란되자 “실수였다” 해명

캘리포니아의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성경을 ‘소설’로 분류해 판매하고 있어서 논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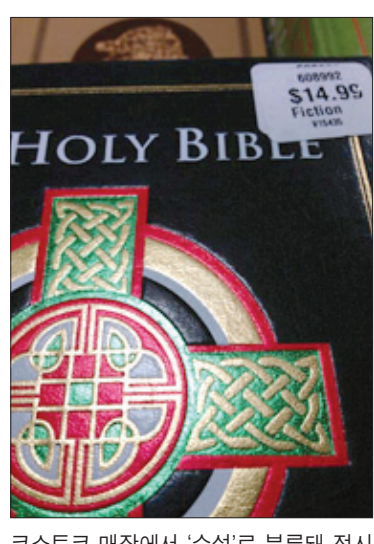
지난 15일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디스커버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갈렘 칼텐바흐(Caleb Kaltenbach) 목사는, 아내의 선물을 고르기 위해 찾아갔던 코스트코 매장에서 성경이 ‘14.99달러, 소설’이라고 전시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매장 내의 모든 성경이 소설로 분류돼 있었다”면서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말하려고 했으나, 책임자는 자리에 없었다”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에 대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칼텐바흐 목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스트코 측의 행동을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코스트코가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대해서도 같은 대우를 할 지 모르겠다. 코스트코 측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 다른 매장처럼 성경을 ‘종교’나 ‘영감’(inspiration)으로 분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이사회에 있는 코스트코 본사는 이에 대해 “실수였다”며 “수정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칼텐바흐 목사는 그러나 현재까지 시미 벨리 매장에 쌓여 있는 성경은 여전히 소설로 분류돼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달라스의 대형교회인 제일침례교회 로버트 제프리스(Robert Jeffress) 목사는 “코스트코의 해명이 사실이기, 이것이 크리



코스트코 매장에서 ‘소설’로 분류돼 전시된 성경. ©칼텐바흐 목사 트위터

스천들의 신앙 기반이 되는 성경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결과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트코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은근히 무시하는 이 같은 행동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의 스티브 스미스 교수는 “성경을 소설로 분류한 것은, 영적인 것은 실재가 아니라고 가정하는 개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상한 점은 주요 서점 내에서 ‘종교 및 영성’ 분야 책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성 분야의 책들이 많아질수록, 기독교에 대한 여지는 줄어들 것이다. 영성에 대한 현대적인 생각은 성경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배타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강해진 기자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 단, 컬러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테이트

\$100 up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조지 W. 부시 前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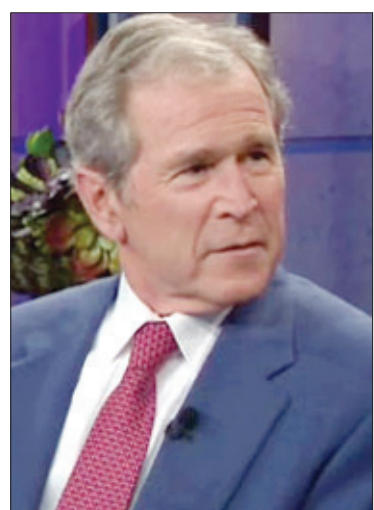
“중대한 결정마다 하나님 의지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시절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과 신앙에 의지했다”고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유명 토크쇼인 NBC 투나잇쇼(Tonight Show)에 출연했다. 그는 진행자인 제이 리노가 대통령으로서의 8년간의 삶에 대해 질문하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나는 신앙에 의지했고, 내 가족들도 많이 도와주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의지했다”고 밝힌 그는, 정해진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내린 결정들에 대해서는 역사가 판단하게끔 놔두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도 전했다.

한편,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정치적 발언을 아껴 왔으며, 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 역시 피해 왔다. 그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는 “전 대통령이 후임자를 비판하는 것은 국가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올해 초 개관한 조지 W. 부시 기념관에 관해서는 특히 도서관에 설치



19일 NBC 투나잇쇼에 출연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방송 화면 캡처

된 대표 작품들 중 9.11 테러 기념비를 언급하며,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나라들에서의 인권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견해를 전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정계에서 은퇴하고 집필 활동을 해 왔으며, 지역사회 봉사나 국제 구호활동 등에도 참여하며 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손현정 기자

입양 가정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



조지아 MPAK 창립행사

조지아 지역에 한국입양홍보회(Mission to Promote Adoption in Korea-MPAK, 대표 스티브 모리슨)가 설립됐다. 이 단체는 지난 토요일(23일) 베다니장로교회(담임 최병호 목사)에서 창립행사를 갖고 “가정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일을 하겠다”는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조지아 MPAK의 대표를 맡게 된 카렌 림 씨는 1970년대 2살에 입양된 타나 림 씨와 결혼한 백인 여성으로 슬하에 6살 케이트와 4살 이삭을 두고 있다. 이삭 역시 2010년 생후 10개월일 때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이다.

서면 인터뷰에서 카렌 씨는 조지아 MPAK 대표를 맡게 된 이유에 대해 “우리 가족은 입양한 이삭으로 인해 정말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스티브 모리슨 대표의 사역과 일을 존경해 왔어요. 이번에 MPAK의 일원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조지아 MPAK의 앞으로의 장,단기 사역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아시아시 우리는 지난 주에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액티비티를 마련해 주고, 어른들은 서로 정보를 나누고 교제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MPAK을 통해 조지아의 한국인 입양 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MPAK은 주로 한국적인 유산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 일해 왔지만 앞으로는 한국적인 유산을 가진 가족들뿐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아이들을 입양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입양에 관심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일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조지아와 한국과 연계된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들랜트 지역에 한국인을 입양한 분들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솔직히 저도 확실히 몰라요. 조지아의 메트로폴리탄 크기와 한국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양단체가 한 개 이상인 것을 볼 때 100가정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양 가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난 해부터 한국에서 새로운 입양법안이 발표됨에 따라 입양 대기 시간이 매우 길

어졌습니다. 보통은 2살 전후의 어린이들이 그들의 ‘영원한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2살 이상이 되면 입양아들이 입양 가족들을 만났을 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것과, 친밀한 애착/유착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동시에 입양 대기 중인 아이들을 돌보는 위탁 가정들 역시 입양 전까지 아이들을 더 오랫동안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힘들어 집니다. 동시에 입양 기관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는 정체성의 문제, 한국 문화와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 한국인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 것과 다른 입양가족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것들이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무엇일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입양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가장 큰 도움은 ‘기도’입니다. 한국에서 가족을 갖지 못한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들의 생모는 아기들에게 생명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위탁 가정들은 아이들이 영원한 가족을 찾기 전까지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입양 기관들은 아이들에게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 과정 중인 가족들과 모든 어린이들이 가능한 빨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입양을 더욱 받아들이고, 싱글맘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입양 가족들을 위한 행사들과 수업을 제공해 주세요. 아이들이 한국 문화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한국 요리, 한국어, 에티켓 등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클라스를 열거나, 입양아들과 가족들을 위한 한국 문화 세미나를 열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위탁가정과 출생 가정, 그리고 입양 가정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통역 서비스, 한국어 교사, 한국 가족들과 입양 가족들이 일대일로 결연해 큰 형, 오빠 혹은 큰 누나, 언니와 같은 특별한 친구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문의) 678-480-8881, KarenAug22@gmail.com 김 앤더슨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현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소 3119 W. 6th, LA, CA 90020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45 E모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화-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장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예배 오전 9: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E모예배 주일 오후 11:00 중, 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목요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2:00

성재복음선교회
은 성도가 성경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12-9200, T. (213) 598-9932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주일 E모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최원형 담임목사

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 사림들의교회, 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90006
T. (213) 388-1927, 388-2105

17기,27기,37기,4기 수료생 배움, 현재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약품이나기구없이 오만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

박승부 장로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1543 Olympic blvd #505 LA, CA 90015
OC부활교회 (아리랑마켓 뒤) T.(213) 381-7273/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E모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너지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정부 배넌전 전분)
음식 보조 푸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의가정의모습, 성경적코이노니아, 만민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초,초,초의 흠뻑,바른교회간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벨리서(Callng), 크리치(Healing), 기르메(Maturing), 왓선디(ontroll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월요일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개우고 이단으로부터방위하며, 인간가정을치유하며, 선교영광을증명하는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930-0011, (323)935-0011 / www.LASarang.com

세대교체 이룬 시애틀 목사회, 회장은 김철곤 목사

시애틀 목사회 총회가 열렸다. (좌부터) 신임총무 장영준 목사, 직전회장 장윤기 목사, 신임회장 김철곤 목사, 부회장 박세용 목사.

시애틀한인목사회는 지난 25일 크로스로드한인교회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갖고 내년도 목사회를 이끌어갈 신임회장으로 김철곤 목사를 선출했다. 또 시애틀목사회는 부회장에 박세용 목사(시애틀연합감리교회), 총무에 장영준 목사(시애틀 밀알선교단)를 각각 선임했다.

시애틀 목회자들은 “목사회가 그동안 조화롭고 효과적인 임원진 세대교체를 이뤘다”고 호평하고, 목회자 상호간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애틀 지역 교회의 부흥을 도모하는 목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날 목사회 총회에는 시애틀기독교회연합회 회장인 최인근 목사와 연합회 임원단이 참석해 시애틀 교계 연합에 대한 청신호를 올렸다.

신임회장 김철곤 목사는 “시애틀목사회가

목회 교류의 중심이 되고, 시애틀 지역 일선선후배 목회자들의 목회에 힘을 실어주는 단체가 되길 원한다”며 “한 해 동안 목회자들을 섬기며 함께 지역 교회의 부흥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교는 직전회장인 장윤기 목사가 “새 힘을 얻음”(왕상 19:1-8)이란 제목으로 전했다며, 축도는 변인복 목사가 했다.

장윤기 목사는 설교에서 “1년 동안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한 해도 충성으로 목회에 임하자”고 전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교회는... 신교회는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해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십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헌 목사, 백성영 목사
백이나 및 수양관 사용
여러문의 환경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 (714) 932-8993, (760) 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춘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전길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창-소년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양성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45/2부 11:45
2부예배 오전 9:45 중/고등부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유아/유아부예배 오전 11:45

대홍장로교회
망글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물통(통)하여 만사형통함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미유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할-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수요일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할-금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새로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세리투스채움) 최희정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투스채움)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벨리채움)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 (다우니 채움)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벨리채움)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번역)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굿스폰, 도시빈민들과 함께한 추수감사절



굿스폰선교회는 추수감사절에도 갈 곳이 없는 빈민들에게 음식과 선물을 나눠줬다.

굿스폰선교회(대표 김재억 목사)가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추수감사절인 28일(목) 오전 11시 애난데일 소재 메시아장로교회 주차장에서 가난한 도시빈민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풍성한 선물들을 안겨줬다.

추수감사절 잔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조영길 목사가 로마서 1장 2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 목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자”며, “축복만 찾아다니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을 축원했다. 기도 시간에는 추운 날씨에 일자리가 없고, 몸이 아프고, 거처할 곳이 없어 전전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 라티노커뮤니티에서도 볼리비아 댄스팀이 참석해 흥겨운 전통춤으로 기쁨을 선사했다.

예배 후에는 한인교회들이 준비한 풍성한 식사와 선물이 라티노 형제들을 기쁘게 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빛지구총교회(담임 장세규 목사) 성도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

해 새벽에 준비한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겨울잠감, 티셔츠, 양말, 비누, 칫솔, 음료수 등 생필품을 패키지로 만들어 선사했다. 행사장 한 쪽에서는 이연순 씨(와싱턴한인교회)가 이발 봉사, 김용관 내과의는 혈압과 맥박 체크 등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는 애난데일 소재 새빛교회(담임 이현호 목사)와 메릴랜드 소재 사랑의감리교회, 굿스폰 볼티모어지역팀인 ‘BUM’ 회원들도 함께 했으며, 제이글로벌 등이 후원했다.

굿스폰 대표 김재억 목사는 “도움이 손길 이 필요한 흑인과 라티노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올해는 실내 장소를 구하지 못해 자원봉사자들과 라티노 형제들에게 미안했는데 오는 성탄절에는 새빛교회에서 잔치를 마련해 보다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굿스폰 성탄절 행사는 12월 25일 오전 11시 새빛교회(담임 이현호 목사)에서 열리며,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703-622-2559(김재억 목사)
조요한 기자

메릴랜드한인목사회, 증경회장 간담회 가져



메릴랜드한인목사회가 증경회장들을 만나 신년 사업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

메릴랜드한인목사회(회장 강장석 목사)가 11월 26일(화) 증경회장들을 초청해,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회장 강장석 목사의 인사, 부회장 박종희 목사의 행사계획 소개 순으로 진행됐으며, 메릴랜드교협 회장 최정규 목사의 메릴랜드교협 사업소개도 있었다.

이날 오전에 참석한 증경회장들은 함심으로 기도하고 더욱 뜻을 합해 메릴랜드목사회와 메릴랜드교협의 사업을 적극 돕기로 했

다. 아울러 증경회장들은 매년 메릴랜드목사회가 주관하는 성탄절 사모위회를 위한 특별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올해 성탄절 사모위회회는 12월 25일(수) 오후 5시 새생전을 건축한 경향가든교회(담임 한태일 목사)에서 모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교회 당회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메릴랜드목사회 임원들의 광고를 듣고 성탄절 사모위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조요한 기자

웨드럴웨이 교회연합회 및 목사회 신임회장에 원호 목사



원호 신임회장이 교회 연합을 위한 각종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웨드럴웨이 교회연합회 및 목사회는 이달 11일 웨드럴웨이 갈보리교회(담임 김용문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으로 원호 목사(웨드럴웨이 새교회)를 선출했다.

이외에도 웨드럴웨이 교회는 2014년도 연합회를 이끌 임원으로 부회장에 오덕상 목사(시애틀순복음교회), 총무에 김경수 목사(사랑의빛교회), 서기에 박연담 목사(웨드럴웨이선교회) 회계에 최병걸 목사(웨드럴웨이제일장로교회)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연합회 소속 목회자들은 연합과 상생의 방법으로 지역교회 부흥을 도모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교회 병합으로 연합을 도모하고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이룬 웨드럴웨이제일장로교회 사례를 꼽으며, 연합회 소속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원호 목사는 “지역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혼구원을 향한 교회 사역의 비전을 공유하고 화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가정과 청년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새소망교회 이성교제 및 가정 세미나 성료



이번 이성교제 세미나에는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 성경적 교제와 가정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워싱턴 DC의 새소망교회(담임 안인권 목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성도들이 특별히 감사해야 할 이유인 가정과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목적으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성교제 및 가정 세미나가 성황리에 끝났다.

찬양으로 시작한 첫째날 강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박수웅 장로가 문을 열었다. 박 장로는 “우리 각자는 태생부터가 의학적 지식으로도 설명하기 쉽지 않을만큼 정말 신묘마축하게 태어났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을 보았을 때 분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일들로 인해 우리의 내면은 가족에게조차 숨기고 있는 곁결과 상처투성이다. 그렇지만 그 어떤 상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진하고, 본인이 인정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치유되기 시작한다”고 전했다.

젊은이들의 관심사인 이성교제와 성, 그리고 남녀의 성격차이를 주제로 한 둘째날 세미나에는 첫째날보다 훨씬 많은 청년들이 참석했다. 박수웅 장로는 특유의 유머로 강의 중간마다 청중들을 박장대소하게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박 장로는 “오늘의 문화는 젊은이들이 신앙적이고 건강한 이성교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이성적으로 보이게 할 만큼 무관하고 무절제하다”며, “그런 잘못된 욕망이 난무하는 이성교제는 청년들의 마음과 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로는 “진정한 사랑은 보호해 주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며, “우리 사랑할까요?”라는 책에 본인이 쓴 것처럼 청년들이 이해하고 있는 스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별시

켜주고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많은 청년들로 하여금 공감케 했다.

남녀의 성격차이에 대하여 강의할 때는 40년을 넘게 동역한 박 장로 부부가 함께 재치 있는 강의로 회중들을 폭소케 하면서 절실히 공감할 수 있는 예를 들려 진행했다.

2시간 가까이 되는 강의였지만 매우 유쾌하면서도 성경적이며 지적이어서 모든 이들이 집중하며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상처로 힘들어하는 가정의 치유의 필요에 대해 강의할 때는 눈물을 보이며 경청하는 청중도 있었다.

셋째날 “성경적인 자녀교육과 진정한 실력자”에 대한 강의에서 박 장로는 본인의 세 자녀를 역경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 있는 변호사, 목회자, 영화감독으로 양육했는지에 대한 예를 들려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 안에 주신 잠재력과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결국 우리의 자녀를 평생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젊은 부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로운 강의와 나눔, 찬양과 교제 시간이었다”며, “이런 자리에 초대해 준 새소망교회에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인권 목사는 “자신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와 사회,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이 이번 세미나들의 결론인 것 같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해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이민자 가정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요한 기자

인패스, 필리핀 이재민 돕기 기금모금 음악회 연다



왼쪽부터 송주호 지휘자, 광태조 지휘자, 정인숙 이사장, 이은애 대표, 유홍중 음악감독.

인패스 청소년 오케스트라(대표 이은애, 이사장 정인숙)가 12월 7일(토) 오후 7시 페어팩스 소재 프로비던스교회(수도장로교회)에서 필리핀 재해 이재민 돕기 기금모금 음악회를 개최한다. 인패스 관계자들은 음악회와 관련해 11월 27일(수) 설악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은애 대표는 “인패스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찬양을 통해 신앙적으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태풍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필리핀 이재민들의 소식을 접하고 매년 여는 정기연주회를 그들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로 바꿔 사랑을 실천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음악을 통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다. 이번 음악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더없는 감동을 선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추천했다.

정인숙 이사장은 “그동안 인패스 사역을 통해 음악을 하는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가족, 친구, 나아가 주변에 있는 불우한 사람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희망과 용기, 위로를 받는 것을 보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유홍중 음악감독은 “지금까지는 현대적으로 편곡하긴 했지만 찬양곡, 찬송곡 위주로 연주해 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장르를 넓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라며, “이번 음악회에서는 찬양곡들과 함께 캐롤과 CCM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시온교회(Zion Church)의 흑인 청소년 13명도 참여해 합창을 선사

하기로 했다. 음악회 티켓은 \$15이며, 수익금은 워싱턴 교협(회장 최인환 목사),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린다 한), 워싱턴중앙일보(사장 이상목)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구호성금모금 캠페인에 전달하기로 했다.

인패스청소년오케스트라에는WMYO(Full Orchestra, 지휘 유홍중), WMWE 윈드 앙상블(Band, 지휘 송주호), WMSO 현악 앙상블(String, 지휘 광태조)과 어른들로 구성된 인패스 밴드가 있다.

인패스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연 2회 정기 연주회와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매년 선교연주와 순회공연 등 찬양과 연주를 통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미니카, 볼리비아, 시카고 등지로 선교연주를 다녀왔다. 미국 대통령 봉사상 추천 인증기관이자 페어팩스카운티 예술위원회(Arts Council) 멤버로서 커뮤니티 봉사시간 인증서도 발급하고 있다.

한편, 인패스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신입단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약기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플루트,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오보에, 바순, 타악기, 콘트라베이스, 호른, 클라리넷 등이며, 12월 14일(토)과 21일(토) 센터빌 소재 우드브릿지뮤직에서 오디션을 진행한다. (문의: 703-850-2626, inpass.me@gmail.com) 어른들로 구성되어 매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연습하고 있는 인패스 밴드는 수시로 모집하며 방성수 총무(571-242-7544)에게 문의하면 된다. 프로비던스교회 주소: 9019 Little River Tnpk, Fairfax, VA 22031 조요한 기자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0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찬양부 오전 9:00/11:00
한아래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어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제8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제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외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9:30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 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 30분
중, 고등부 오후 3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청년부 오후 3시 한국교회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믿음을 닦고 사랑을 실천하며 영혼을 구원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은 우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EM예배 오전 10:00 (FC채움)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오후 12:3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채움)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강림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한중수 담임목사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 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전 1:30

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광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2부 오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지 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과 성령강림으로 굳건한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랑과 생명의 사랑을 감동받은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목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아래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목요일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일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화요일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안근성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주희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결혼교회, 사모교회, 부부교회, 아버지교회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감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연말연시 감사대세일

위산과다 개선과 위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50 ea +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객 감사 특별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연산 \$100 구입시 **HQ미네랄 소금 1파운드(시판가 \$40) 선물증정**
구연산 \$200 구입시 **HQ미네랄 소금 3파운드(시판가 \$120) 선물증정**
Sea of Cortez 소금은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소금이며 천연 미네랄 함량이 전체 무게의 17%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암염보다 10배 이상, 기타 소금보다 5-20배이상 함유된 세계 최고의 무공해 천연 바다 염전 소금입니다.

HQ구연산은 시중에는 없으므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타사 100% 구연산 캡슐제품은 인체 장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므로 FDA 위법 제조로서 고발 대상입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프로모션 A \$280 \$100 No tax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프로모션 B \$270 \$100 No tax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프로모션 C \$28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리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있었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뾰루지 따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다음.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은.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 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쳐라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방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의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보수주의, 문법 미숙해도 말 능숙한 원어민 같아

‘설교의 대가’ 박영선 목사, 30년 교수 생활 마치며 고별강연



박영선 목사의 마지막 고별 강연이 합동신대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 설교가인 일병(一鉞) 박영선 목사(남포교회)가 지난 30년 동안의 교수 생활을 마치며 29일 수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조병수, 이하 합동신대)에서 ‘고별강연’을 전했다.

그는 지난 1983년부터 합동신대에서 목회와 설교를 가르쳐 왔다. 당초 이 강연은 약 100명 규모의 교내 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학생들과 교인들이 몰려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박영선 목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보수주의의 명예’를 제목으로 강연했다. 보수주의의 의미와, 자유주의와의 차이,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 등을 재치있는 유머와 쉬운 예화 등을 섞어가며 설명했다.

강연 후 참석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의 아름다운 퇴장을 격려하기도 했다.

그는 ‘보수주의’를 설명함에 있어 먼저 ‘텍스트’(Text, 본문 혹은 하나님의 경륜 및 약속)와 ‘컨텍스트’(Context, 문맥 혹은 정황)를 구분했다. 즉,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의 시행으로 이해하는 보수주의에게 ‘텍스트’가 중요하다면, ‘컨텍스트’는 역사보다 실존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우선인 자유주의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게 박 목사의 견해다.

박 목사는 “역사는 텍스트를 담고 흘러가지,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외면했거나 실패한 과거는 없다”며 “어느 정황, 어느 사건, 어떤 사람이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마치 세상에 예수를 내어주신 것 같이 개입하셨고 또 함

께하셨다.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누적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우 소홀히 여긴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주의가 바로 이러한 텍스트를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텍스트를 담은 컨텍스트가 때론 너무 극적이어서 자칫 그 둘을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보수주의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박 목사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그중 하나”라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이해하게 된 정황이 내게 너무나 큰 나머지, 그와 같은 정황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텍스트’가 없다고 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정황(컨텍스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임재가 본문(텍스트)으로 있는 것인데, 본문이 정황과 너무 밀접하게 묶여 있어서 본문보다 정황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라며 “그래서 내 정황과 같지 않으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보수주의가 일부 사람들로부터 ‘불통’이라고 외면을 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목사에 따르면, 가령 보수주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나 ‘박윤선 목사(합동신대가 속한 예정합신교단의 설립자-편집자 주)’를 따르지 않으면 정통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시선이 바로 그와 같은 잘못이다.

그렇기에 “방식의 차이를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게 박 목사의 조언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본문을 담고 있다면, 다른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데

내가 본문을 만났을 때의 정황, 오직 그 정황만이 본문을 담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 다른 정황을 겁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는 매우 명예롭고 특별한 것이라고 박 목사는 강조했다. 그는 “보수주의는 마치 한 나라에 살면서 모국어를 구사하는 원주민과 같다. 고민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건을 만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넣어주신 것”이라며 “문법을 완벽히 알지 못하나 말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원어민처럼, 보수주의는 왜 그런지 내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나를 일으키는 힘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의 자리에 있는 것이 또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맏아들은 돌아온 탕자를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맏아들에게 ‘내 것이 곧 네 것’이라고 말한다”며 “이것이 보수주의의 진영이 형성된 이유고 보수주의를 보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목사는 보수주의의 ‘내부적 구별’ 혹은 ‘배타적 확인’을 다시 한 번 경계했다. 그는 “우리의 정체성을 신자와 불신자,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것에서 확인해선 안 될 것”이라며 “하나님의 넓어심을 이해하고, 그분의 구원을 나누는 자리에서 있음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경멸의 시선보다, 그들의 진지함과 몸부림을 이해할 줄 아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와 미주한인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워싱턴DC에 소재한 국제성경연구원(원장 김택용 목사)이 11월 26일(화) 정기 모임에서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를 초청해, “한국교회와 미주한인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류응렬 목사는 크게 3가지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각각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첫번째로 류 목사는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목회후보생들의 마음가짐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졌다”며, “2-30년 전만 해도 목회자들에게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고마움, 사명감이 넘쳤다. 거의 독립투사처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최우선으로 삼고 목양에만 전념하는 목회자들이 많았다. 반면에 지금은 자기 관리도 잘 하면서 가족도 잘 챙겨야 하고, 철이나 금식기도보다는 건강하게 목회하는 쪽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만큼 목회자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배와 그물, 심지어 부친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의 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급진적인(radical) 의식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해결방안으로 류 목사는 “진정으로 십자가 체험을 하고, 신앙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만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류 목사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목사는 “이전에는 신학서적 한 권 사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책이 귀했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성경책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기에 투박하지만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됐다. 요즘은 박사가 아니면 강단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학식을 갖추었고, 서적도 개인 서재에 책이 넘쳐난다. 이렇게 모든 것이 충만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목회자들이 생겨날 정도로 십자가의 복음이 약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 목사는 “이것은 목회자 자신이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했던지, 십자가의 능력을 못 믿기 때문이



류응렬 목사

라고 생각된다. 목회자는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요,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어떤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설교가 강단에서 울려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류 목사는 사회 현상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류 목사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상하복종의 관계에서 탈출구를 찾던 시대에서 모든 것이 해체되고 개인주의화된 시대로 바뀌었다. ‘절대 진리’가 무너지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되버렸다.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살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다. ‘지옥’을 말하지 못하는 신학교가 생겨나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 절대자인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에게 편안한 하나님으로 대체되고 있다”며, “교회가 투박하지만 성경의 원리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철학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목사는 “모든 교회가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 전투 속에서 살고 있다’는 비장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가 사명이라는 인식을 갖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다음 세대들을 신앙의 거목들로 키워내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703-927-1267(국제성경연구원장 김택용 목사)

주요한 기자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증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11월 1일)

> 한영이증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증언어로 진행되며,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힘든 사역 즐겁게 하는 12가지 방법

“계획 기록하고, 임무 쪼개라, 성취의 유익 상기시켜라”

릭 워렌 목사(새들백교회)가 최근 한 칼럼에서 '사역에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워렌牧사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노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 대신) 나는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에 대해 염려한다.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에게 동기가 부여된 상태라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열정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여러분의 비전을 붙잡을 것"이라고 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아니라"는 말씀을 인용한 워렌 목사는 "나는 주중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말 설교를 준비하는데 쓴다. 글을 쓰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새롭고, 강력하고, 실용적이고, 위트 있고, 사람들의 삶에 유용한 내용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내게 부담이기도 하지만, 나는 늘 동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다.

1. 당신의 계획을 종이(또는 영상)에 남겨라

도슨 트로트맨(Dawson Trotman)은 "생각은 입술과 손가락을 통해서 나올 때 풀린다"고 말했다. 내가 만약 그것을 말할 수 있다면, 또한 적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은 내 안에 분명해진다. 만약 내가 생각을 아직 적어두지 못했다면, 그것은 막연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무 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단순히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신뢰와 안심을 주고, 여러분이 생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

2.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커다란 임무를 작은 것들로 쪼개라

몇몇 일들은 한꺼번에 처리하기에 너무 큰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도전할 수는 있다. 여러분은 큰 목표나 큰 행사 혹은 큰 프로젝트를 있을 때, 그것을 작은 임무로 나누어 한 번에 하나씩 해 나가라.

3. 어떻게 시작하길 원하는지 결정하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물어보라.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더 많은 전화를 돌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초대할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엇을 시작할 것인지 결정하라. 이는 단순한 단계가 될 수 있다.

4. 과정에 있어서 확인할 점들을 만들어 보라

임무는 데이터와 함께 주어질 때가 잘 완성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주의사화와 함께 목록 작성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정말 많다.

5. '나는 할 수 없다' 와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의 차이점을 알아

스스로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 때로는 이것이 여러분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자신의 저서 '가난한 리처드의 연감'에서 "고통 없는 이득은 없다"는 유명한 말을 했다. 이 세상에서 이뤄진 대부분의 일들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일을 하는 습관을 발전시켜 나간다.

6. 스스로에게 완성된 일의 유익을 상기시켜라

종종 사역을 하다가 일이 지루해지고 반복적이 될 수 있다. 매주 중요한 20여 가지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무디게 된 감정이 자리잡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일이 만족됐을 때 느끼는 감정을 되새겨야 한다.

7. 작은 부분을 지금 바로 시작하라

내가 이뤄야 하는 커다란 임무 혹은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나는 단순히 "이것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5분만 하겠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일단 앉아서 일을 시작하면 생각만큼 힘들지 않다. 여러분이 한번 시작한 후에는 일이 훨씬 쉬워진다.

나는 여러 권의 책을 썼다. 책을 쓰는 일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나는 매번 5분씩을 주면서 일을 했다. 때로는 여러분이 단순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

8. 긍정적이 되어라

많은 활동,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9.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는 이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나는 집과 교회에 나만의 공간을 갖고 있다. 나는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책상에 있는 모든 것을 깨



릭 워렌 목사

끗이 한다.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은 한 번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온다.

10. 주의가 산만한 장소는 피하라

나는 절대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다. 벽이 얇아서 밖에서 사람들이 교제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소리가 들리고, 또한 나는 파티를 매우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놀고 싶어진다! 앉아서 공부하는 대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진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고픈 유혹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해야만 한다. 사람들도 역시 이를 고맙게 생각한다!

11. 여러분의 에너지 패턴을 잘 알고, 최고조의 시간을 이용하라

여러분 중 일부는 아침형 인간이고, 또 다른 일부는 저녁형 인간이다. 여러분은 하루의 어느 지점에서 다른 때보다 빛나는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시간대가 있다. 여러분은 자기 신체의 시계가 최대치의 능력을 향하는 때를 알 필요가 있다. 그 능력을 중요하지 않은 임무를 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

만약 여러분의 최대치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 사이라면, 그 동안에는 이메일을 읽지 말라. 이러한 일은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아침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그 때 이메일을 읽으라. 여러분의 컨디션이 좋은 시간을 사역과 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라.

12. 좋은 소식을 통한 자극을 또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하라

어떤 사람들은 내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또 다른 아드레날린을 분출해주시는 것과 같다. 이를 통해 나의 발걸음에 작은 활력소를 얻고, 이 에너지를 사역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강해진 기자

청년들 최고의 관심사 동성애

페리 노블 목사, 청년들의 질문에 답변

사우스 캐롤라이나 소재 뉴스프링스교회(New Springs Church)의 페리 노블(Perry Noble) 목사가, "여러분이 물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 동성결혼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청년 교인이 많은 스프링스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동성결혼에 대한 것이었다.

페리 노블 목사의 뉴스프링스교회는 약 3만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올해 아웃리치 매거진 선정 미국 '100대 대형교회' 4위와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 2위에 올랐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2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데이тона 비치에서 개최된 뉴스프링스교회 청년캠프에서는 673명이 세례를 받고 338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도 했다.

노블 목사는 "좋은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의지가 굳센 사람들이다. 성경은 동성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모르는가"라고 물은 뒤, 고린도전서 6장 9-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읽었다.

읽기를 멈춘 그는 "우리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기만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 중 하나다. 우리는 이러한 죄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씻김을 받았다. 거룩해졌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은 거룩해졌다"고 했다.

그는 "성경은 우리 모두를 못 박았다. 우리 모두는 최소한 이 죄의 범주 가운데 하나에는 속한다. 초점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심지어 우리가 죄에 사로잡혔을 때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대

가도 치르셨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초점을 맞출 때, 동성애가 성경에서 언급한 유일한 죄는 아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이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고 비추는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노블 목사는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가 한 일은, 성경을 취하여 다른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피는 거울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삶의 기준이지, 다른 이들을 향해 던지기 위한 돌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그는, "우리가 성경을 거울에서 창문으로 바꿀 때, 이는 우리의 죄를 최소화하고 다른 이들의 죄를 극대화한다. 이것보다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고 했다.

노블 목사는 또한 "결혼이 하나님께 '빅딜'이 된다. 교회에도 빅딜이 될 수 있다. 결혼은 건강보험이나 세금환급에 대한 내용이 아닌,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반문하면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하셨던 말씀을 인용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이후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노블 목사는 "삶에는 두 가지의 경계가 있다. 이를 넘어가면 우리가 파괴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 형태의 인간을 만드셨다. 이것이 내가 '기독교인들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있다'고 믿는 이유이고, 나는 이 진리를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라는 배경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 성을 주셨다. 이 경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적 타락이라고 부르신다. 이것은 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이다. 동성애뿐 아니라 경계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블 목사는 "모든 것이, 레즈비언, 간음자, 포르노 시청자, 아동 성매매자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경계 밖에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했다.

강해진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삼,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 : (213) 402-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IN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추수감사절 대세이클

중고차
고가매입 Trade In
환영

\$159

2013 New Sonata GLS

MSRP \$22,375
 Residual \$13,648.75
 12K miles per year+ tax/mo
 On 3years closed end lease Drive-Off
 \$1000+lic&doc on O.A.C.

Stone Kang

888.721.9812

3462 N Peck Rd, El Monte, CA 91731

이 가격에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

*No purchase necessary. Must be 18 or over with valid driver's license. Offer available to customers who must 1. Test drive a vehicle 2. Complete Credit application 3. Complete write-up on a new vehicle purchase 4. Were not able to come to an agreement on a new car purchase. 5. Must bring printed email at time of write up. Not valid for those whose credit does not qualify for loan. Limit one per household. Offer applies to new vehicles only.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Not all customers qualify, see dealer for details.

기독교일보 12/5/2013 7면 MCYK

<가치관 전쟁>

더 치열해지는 영적 전쟁!!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점점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인 DOMA(Defense of Marriage Act)를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에 폐지한 이후,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고자 하는 거센 어둠의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의 팽팽한 갈등이 미국 전역으로 더 치열하게 번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하와이 하원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었고, 일리노이 또한 하원에서 통과되어 주지사 팻 퀸(Pat Quinn)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주지사인 닐 아버크롬비(Neil Abercrombie)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가 먼저 15번째 또는 16번째의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주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와이와 일리노이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정의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에게 는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치열한 영적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편에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에는 아직도 35개의 주(State)가 남아 있으며 이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전쟁은 늘 있었습니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에 서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셨고, 수많은 치열한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으니까요.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쟁을 치루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얼마 전에 다음 세대들을 목표삼은 또 다른 두 가지의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SB274는 법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2명 이상일 수 있는 법이며, AB154는 면허를 가진 의사가 아닌 조산사도 낙태를 시술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SB274는 Family law: Parentage: Child Custody and Support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은 지난 10월에 통과되었지만, 이 법안에 대한 필요, 불필요 또한 유익, 무익에 관한 논쟁은 몇 주가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이들이 “두 부모(more than two parents) 이상”을 갖는 것을 허락하는 법입니다.

법적으로 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와 친아빠 외에도 “동시에” 여러 부모(양부모, 동성애 부모, 보호자 등)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는 법안입니다. 그냥 들어보면, 좀 진보주의적인 분들은 “그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부모 이상을 가진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또는 “만일 친부모들이 자녀를 돌봐줄 수 없다면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친부모가 되는 자격을 얻어서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더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다른 부모가 친 부모를 대신하여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부모, 양부모, 동성애 부모 등, 이 모든 부모들이 “한꺼번에” 부모로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친부모가 이혼을 한 후, 친아빠는 다른 동성애자와 만나게 되고, 친엄마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어른(부모)들이 모두 법적으로 한 아이의 부모권을 SB274에 의해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의 법관 또는 변호사들이 그것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에게는 친엄마와 친아빠 외에도 양아빠와 동성애자 아빠까지 네 명의 부모권을 가진 부모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안을 제출한 마크 리노(Mark Leno)에 의하면, 이 법안은 “가정/가족 변호사들에게 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결정권을 더해줌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면 여러 부모들을 불러줌으로써 아이들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법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반대하는 캘리포니아의 기독교 단체들 중, 잘 알려진 Pacific Justice의 Brad Dacus같은 경우는, “이 법안은 아이들의 선택과 그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기 보다는 가정 문제를 더 복잡하고 더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가정문제도 이미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혼돈과 혼란, 심적인 부담감을 갖게 하는 등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만 더 힘들어 질 수 있는 법안이다”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캘리포니아는 기존 법에 의해, 입양이나 고아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부모이든 양부모이든, 또는 보호자이든, 아이들에게는 우선적으로 “한 부모” 또는 “한 보호자”가 책임지고 아이들의 양육과 성장을 도우며, 그 주위의 가족들이 돕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라 김 대표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무엇보다도, 한 부모 아래서 건강하게 성장한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관, 결혼관, 사회관을 갖게 된다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만들고 제출한 마크 리노 의원은 캘리포니아에서 매우 호전적인 동성애 운동가이자 정치가이며, 무엇보다도 지난번 SB48을 만들어 제출했었던 샌프란시스코의 상원 의원입니다. 그 외에도 그는 몇 년 동안 계속 동성애 운동을 활발히 펼쳐,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후원하여 왔습니다.

그는 2012년에 SB274와 매우 흡사한 SB1476을 제출하였지만,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자, 2013년에 다시 법명만 바꾸어 SB274를 만들어 제출하고 다른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친동성애 정치인들과 협력하여 결국에는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이 서명함으로써 이 법안을 유효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에서는 펜실베이니아, 메인, 델라웨어 그리고 워싱턴DC에서 아이들이 두 부모 이상을 갖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부모 이상을 동시에 갖게 하는 것이 어린 자녀들에게, 또한 예민하고 민감한 심대들에게,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어지지 않은 모든 자녀들에게 과연 건강하고 유익한 것일까요?

부모들과 어른들의 무질서한 성생활 또는 결혼생활에 의해 동시에 두 부모 이상을 갖게 될 아이들에게 이 법안은 어떤 결과와 어떤 영향력을 초래할런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까.

또한, AB154가 이미 한 달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AB154는 민주당의 토

니 앳킨스(Toni Atkins, 샌디에고)가 만들어 제출한 법안으로서 낙태시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Planned Parenthood가 강력하게 지지한 법안입니다. Planned Parenthood가 강력히 지지한 이유는 이 법안이 정식 의사가 아니라도, 간호사나 산파 또는 간호사 도우미들까지도 낙태를 해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낙태를 더 빨리 시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기를 낙태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낙태를 하는 임신부의 건강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험 없는 사람들조차도 만일 정식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도우미들이 낙태수술을 감행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짐작하고도 남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만 가며 전 미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타주에서도 이러한 영적 싸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신앙의 나라 건설의 4중 이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을 출발했다. 두어 달 만에 플리머스에 도착하였다. 원래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뱃길을 한 달을 더 걸려오게 되었다. 급작스런 돌풍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그 한 달이 아주 고통스러웠지만 힘겹게 지나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지혜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때에 나라 건국이념이 더 정확하게 형성되었고 신앙을 제일로 하는 4대 건국 이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첫째, 그 신앙은 도덕성(Morality)이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예언자적인(Prophetic) 강한 도덕성 추구가 복음주의적(Evangelistic) 포용성과 세워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 신앙은 자유(Liberty)가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유는 평화(Peace)를 추



김희창 목사
말씀새로운교회

(Youth)에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정착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에 있어서만큼은 폭넓은 대출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얻고 있다.

셋째, 그 신앙은 법(Law)이 잘 집행되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의(Justice)가 살아있는 법을 집행함과 동시에 자비(Mercy)가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법치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렇게 이들에게 고통은 축복의 전주곡이었다. 이러한 고통을 감사함으로 풀어갔던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눈과 입이 열리길 기원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시100:4).

구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강한 파워로 통제되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질서를 위해서는 강력한 경찰력이 동원된다.

넷째, 그 신앙은 교육(Education)이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지혜(Wisdom)를 얻는 교육을 추구하는데 젊은 때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 Tel: 213.380.0853 |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몰 2층) LA, CA 90006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소천 50주기, 출판사가 말하는 C. S. 루이스 사용법

13년간 총 31종 출판... 기독교 변증해 복음 전하는 것이 특징



루이스의 주요 변증서들. (왼쪽부터 순서대로) Christianity Today 선정 '20세기 최고의 책(Books of the Century) 10권(Top 10)' 중 1위에 뽑힌 「순전한 기독교」와 루이스 입문서 「고통의 문제」, 흥성사 직원들이 가장 힘들게 느꼈다는 「기적」

50년 전인 1963년 11월 22일, 널리 알려진 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아직까지도 죽음과 관련한 음모론이 끊어질 않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멋진 신세계>를 쓴 영국의 올더스 헉슬리, 그리고 본지에서 꾸준히 '소천 50주기'를 맞아 소개하던 C. S. 루이스다.

한국 내에서 'C. S. 루이스' 하면 흥성사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흥성사는 지난 2000년 1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시작으로 루이스가 쓴 작품 22편과 관련 서적 9편 등 13년간 총 31편을 펴냈다. 50주기가 어느 누구보다 남다르게 다가올 '흥성사가 말하는 C. S. 루이스와 그의 작품들, 그 '사용법'과 주요 에피소드들에 대해 들어보자.

-C. S. 루이스의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출간하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현재까지 나온 관련 서적들의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루이스 정보 시리즈'를 내기 전, 당시 국내에 존재하던 루이스의 책들은 해외 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고 질이 떨어지는 번역으로 루이스의 진면목을 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황이 무척

안타까웠고, 그만큼 한국교회에 C. S. 루이스를 제대로 소개해야겠다는 의지 또한 컸습니다.

지금까지 흥성사에서 펴낸 루이스의 책은 모두 31권입니다. 그의 저작이 22권이고, 연구서 및 관련서가 9권입니다.”

-출판사에서 루이스의 책에 유달리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품에 집중하면서 그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작품들까지 파고드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루이스를 제대로 소개하려고 애쓴지 어언 15년이 지났습니다. (해외 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하고도 출판하기까지 다른 책들보다 몇 배나 더 노력과 수고가 들었습니다. 이종태 목사님, 김선형 선생님 등 처음 역자 분들의 공이 큼니다. 사진을 참고하기 위해 온 세계의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골라서 값을 치르고 사는 일도 수개월씩 걸렸습니다. 루이스의 사인 하나도 당시 미술시장 권진숙 선생님이 정교하게 다듬고 매만진 것을 사용했습니다.

루이스의 다양한 면모를 더 잘 알리기 위해 루이스 전문가를 찾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했고, 그에게 영향을 주

거나 자극을 준 저자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오래도록 해 왔습니다. 책임 편집자를 영국 현지로 보내 루이스가 지낸 곳들을 답사하게 하기도 했지요.”

“여전히 그를 품고 사는' 흥성사 정애주 대표이사는 출판사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발행하는 '콧' 11월호에서 C. S. 루이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를 생각하면 왠지 가슴 가득 먹먹한 눈물이 차오른다. 모르겠다. 왜 그런지는, 루이스를 한국에 알리고자 수고한지 어언 15년이다. 손익을 따져 보아야겠다. 정식 계약을 하고도 출판하기까지 처음 길을 가는 듯 노력과 봉사는 다른 책의 네 배가 들었다. ... 루이스를 하다 보니 쉽게 감동을 주는 책에 대한 '족'이 무더진 것이 더 큰 고민이었다. 팔릴 만한 대중적인 원고는 계속 뒷전이 되고 말았다... 아깝잖아! 그만하자.”

-지금도 C. S. 루이스의 글이 많이 읽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는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C. S. 루이스는 누구보다 이성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풀어내고 변증함으로써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상력을 통해 기독교 세계를 더욱 깊이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주었지요. 무엇보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점이 귀감이 되어, 한국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전해야 하는지 배우고 깨닫게 합니다.”

-C. S. 루이스의 작품들이 현재까지 나온 것만 22권인데, 어떤 작품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정말 좋은데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쉬운 책이 있다면요.

“루이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먼저 읽기 좋은 책으로는 「순전한 기독교」와 「고통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을 먼저 섭렵하면 나머지 책들은 어떤 순서로 봐도 루이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무난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어떠한가 하는가 등에 대한 C. S. 루이스의 관점이 돋보이는 「순전한 기독교」는 신앙인들이 몇 번이고 읽어도 좋고, 주변에 기독교를 모르거나 그릇된 인식을 가진 분들에게도 소개하기 좋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도, 떼어놓을 수도 없는 주제인 '고통'에 관한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해답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논란이 많았던 작품이나, 독자들 반응이 (좋은 싫든) 가장 뜨거웠던 작품은 무엇인가요.

“논란은 아니지만, '루이스도 이런 생각을 했구나' 싶을 정도로 솔직하게 쓰인 책이 있는데, 바로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해 온 C. S. 루이스가 아내와 사별한 뒤 깊은 절망에 빠져 의심과 믿음, 원망과 감사의 줄타기를 하며 써내려간 글입니다.”

-흥성사 직원들이 가장 힘들게 느꼈던 작품이 있다면요.

“「기적」이라는 작품은 루이스 스스로도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책을 쓸 수 없을 것 같다'고 고백할 정도로 기독교 변증 작업에 헌신의 힘을 다한 책입니다. 그의 책 가운데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편이어서, 편집 과정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라는 주제만큼, 그와 관련한 루이스의 놀랍고도 기발한 생각을 만나볼 수 있지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루이스의 작품들은 얼마나 되나요. 출판 계획이 궁금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밤(The World's Last Night)」이 내년 출간될 예정입니다. 「기독교적 속고」나 「피고석의 하나님」 같은 루이스 글 모음집이지요. 내후년 출간 예정인 「실낙원 서문(A Preface to Paradise Lost)」은 존 밀턴의 「실낙원」에 대한 루이스의 신학적인 가정과 문학적 접근을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길어도 5년 안에는 루이스 시리즈가 완결되리라 봅니다.” 이대웅 기자

혈당조절, 세포노화방지 **포르테**

세종 송보감

“춤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바이오테크 SEJONGBIOTECH, INC.

세종 **오로청보감** 세종 **뇌보감 골드**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건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27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2층)

초스피드 다이어트 구연산 판매합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미용침 **배뺄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 213.924.8189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트모아)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특집

성경, 그 이야기 속으로... 읽고, 사랑하고, 살아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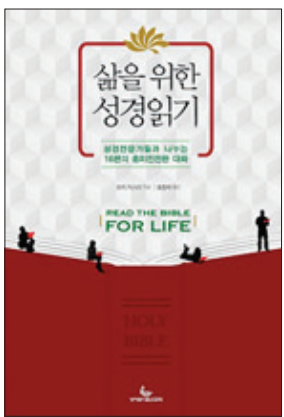
성서주일 맞이해 성경읽기를 돕는 서적들

오는 12월 8일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으로, 그 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성경을 더욱 읽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취지의 '성서주일(聖書主日)'이다.

1904년 영국성서공회가 성경출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성서주일을 지키기로 결정한 이래, 한국에서도 1954년부터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다.

성서주일을 맞아, 성경 또는 성경 연구와 관련된 책들을 접하면서 성경을 더욱 사랑하는 크리스천이 되는 계기로 삼고, 다가오는 새해 성경 1독의 의지를 다시 불태울 전초전으로 삼아 보자.

◆성경 전문가와의 흥미진진한 대화



삶을 위한 성경읽기

조지 거스리 | 성서유니온선교회 | 400쪽

16명의 신학자들이 '성경 해독력 향상 프로젝트'를 위해 뭉쳤다. 히브리서 권위자인 조지 거스리(George H. Guthrie)가 기획한 이 프로젝트는 개인과 교회들이 성경을 효율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내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책은 '성경읽기: 기본 이슈들', '구약 읽기', '신약 읽기', '현대 문맥에서 성경읽기' 등 4부로 나뉜다.

이 책은 성경의 여러 부분을 잘 읽는 것과 삶의 여러 자리에서 성경을 잘 읽는 훈련에 초점을 맞춰, 열여덟 달에 걸쳐 여러 사람들과 진행한 인터뷰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에게 주제를 던져준 채 글을 써 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자연스러운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독자들이 평신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요즘 한창 유행하는 '팟캐스트'나 '토크 콘서트' 형식을 취한 것.

거스리는 바쁜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획을 진행한 이유로 첫째, 성경을 읽는 일이, 그것도 잘 읽는 일이 중

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경은 서양 사회의 문화와 언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책이며, 그리스도인의 영적 활력의 토대이자 에너지원이다. 신자라면 진리를 알기 위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 하나님의 자유·은혜·평화·소망을 체험하기 위해, 그리고 죄와 오류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매일' 읽는 것이 가장 좋다.

둘째 이유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성경은 (서양의 경우)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제도, 문학과 예술 영역에서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거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사람들(the people of the Book)'이 돼야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한다. 성경을 읽지 않음으로 인한 무지는 우리 각자와 교회, 복음 증거를 손상시키고 복음의 진보를 저해한다고 저자는 우려한다.

1부는 삶의 지침으로서 성경읽기(데이비드 도커리), 맥락에 맞게 성경읽기(안드레아스 포스텐버거), 번역으로 성경읽기(클린트 아놀드, 마크 스트라우스), 변화를 위한 성경읽기(조지 거스리), 2부는 구약 이야기(브루스 윌키)와 구약 율법(다니엘 헤이즈), 시편과 잠언(데이비드 하워드), 예언서(게리 스미스) 읽기를, 3부는 신약 이야기(테릴 북)와 예수님의 가르침(크레이그 블룸버그), 신약 서신서(더글러스 무)와 요한계시록(스콧 듀발) 읽기를, 4부는 개인경건을 위한 성경읽기(도널드 휘트니), 슬픔과 고통의 시기에 성경읽기(마이클 카드), 가족과 함께 성경읽기(맷트 거스리), 교회와 더불어 성경읽기(버디 그레이와 데이비드 플렛)를 각각 소개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저자들이 적지 않다.

◆성경을 속 시원하게 풀면서 읽는다

성경 통독 강의를 오랫동안 해 온 '말씀(말씀 통독) 목사'의 52일 성경일독 프로젝트가 담긴 책이다. 조상연 목사(레제나하우스 원장)는 안식년을 보내며 로마서를 1천 회 읽으면서 '성경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한다. 그때부터 이 책이 나올 때까지 구약 5백 독, 신약 1천 독, 바울서신 2천 독, 로마서 3천 독을 돌파했다. 저자는 수년간 하루 10시간씩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하루 5시간에 성경 전체를 '떼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마스터 말씀 통독

조상연 | 넥서스CROSS | 444쪽

1년에 1독 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5시간 만에 1독이 가능할까? 저자는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에 쪽 읽는 것은 쉽지 않다"며 "성경을 역사적 구조로 읽으면 좀 더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역사적 관점에서 13개 시대로 구분하고, 줄거리를 살피면서 구조를 파악해 내용을 마스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결국 성경을 1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관통하는 뼈대를 잡아주겠다는 이야기다. 52일간 성경 전체가 아니라, 각 시대의 뼈대가 되는 14권의 성경을 읽게 된다.

저자가 분류한 시대는 창조(창세기1-11장), 족장(창세기12-50장, 욥기), 광야(출애굽기-신명기), 정복(여호수아, 사사(사사기-룻기), 통일왕국(사무엘상하, 시편-아가서), 분열왕국(열왕기상하, 아모스, 호세아, 요나, 오바다,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훬,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포로(역대상하,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애가), 귀환(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말라기, 침묵(신약 중간기), 복음(마태-요한), 교회(사도행전-유다서), 영원(요한계시록) 등이다.

성경의 '52일'은 느헤미야가 방해하는 세력들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완성한 기간이다. 저자는 "성벽 재건은 영적으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 시대의 부흥은 거룩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의 기준은 여전히 말씀이다. 살아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죄와 타협하는 내부의 적과 부패의 근원을 적출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레제나 말씀 학교'에서 1년에 3차례 성경통독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성경은 이야기다!

"우리는 책을 한 권 받았다. 인류 역



성경, 이야기로 읽는다

스티븐 니콜스 | 성서유니온선교회 | 240쪽

사에 나타난 그 어느 책과도 다른 책이다.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하고, 인간의 모든 통찰을 뛰어넘으며, 인간의 모든 전문지식을 능가하는 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읽으라는 초대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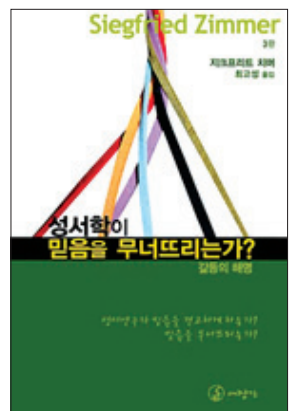
저자는 성경을 이야기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속으로 들어가, 그 이야기에 참여할 것을 권한다.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면서, 우리 삶을 설명하는 유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문자가 없던 시절, 세계관을 전하는 방식이었다. 대표적 이야기인 소설이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구조를 갖고 있듯, 성경은 '창조-타락-구속-회복'의 줄거리를 갖고 있다.

그 줄거리를 하나 하나 설명한 후, 저자는 이야기의 또다른 요소인 인물과 주제 등을 언급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랑하고, 살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성경읽기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실제적 요령과 함께, 성경탐구 여정을 위한 몇 가지 기본지침도 제시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성경은 바로 나를 위한 책이다"는 말에 고개를 더 세게 끄덕일 것이다.

◆성경연구는 믿음을 무너뜨리는가? 세워주는가?

이대웅 기자

'비평'에 치중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의구심을 주로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진 '현대 성서학'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책. 독일 루트비히스부르크 교육대학의 신학과와 종교교육학과 교수인 저자는 현대 성서학의 찬성자와 반대자 간의 대립으로 기독교에 '틈'이 벌어진 현실을 우려하면서, 자신이 '다리를 놓고자 한다.



성서학이 믿음을 무너뜨리는가? 지크프리트 차머 | 대장간 | 256쪽

저자는 "기독교적 확신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며 "찬성자와 반대자가 학설에서는 일치할 수 없더라도, 마음 내지 성경 안에서는 일치할 수 있을 것"을 전제하면서 논의를 진전시킨다.

두 학파는 "성경이 신적 속성을 가지는가?"에서부터 길이 나뉜다. 그러나 저자는 어디까지나 '현대 성서학'의 입장에서 손을 내밀고 있어 '축자 영감설' 등에 대해 염려하는 입장이다.

'하나님과 성경',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영감이란 무엇인가', '현대 성서학의 생성과 발전' 등을 검토한 후, 저자는 처음의 논의로 돌아가 '성경과 관련된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점의 중요성'을 다시 설파한다. 그리고 양측의 상대편을 향한 '이해와 존중과 희망'을 촉구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WCIU conference: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From now on, conferences are held at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Includes address: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Contact: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Advertisement for NB CORSET: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Put it on and your back problem is solved in a weird way!!). Features a woman wearing a corset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posture and back pain. Contac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Advertisement for KSB 헬시케트: '따뜻한 겨울, 건강을 주는 살아 숨쉬는 품의 섬유' (Warm winter, healthy living fiber). Promotes KSB Helshiket as a health product made from wool. Features a horse and text about its benefits for circulation and health. Contact: 626.398.2415, www.wciuproperties.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HAND MEN AVAILABLE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교회 기도실

213) 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닝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치매는 **치매탕**으로

특징

1. 인지기능을 상승시켜주는 아세틸콜린 농도 증가
2. 굳어지는 혈액을 풀어주는 PLASMIN 활성화된다
3. 치매의 원인이 되는 B - AMLYOID를 제거
4. 뇌세포를 파괴하는 산화스트레스 제거
5. 뇌의 혈류를 촉진시켜 영양과 산소 공급 증가
6.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1. 치매환자에게서 뛰어난 인지능력 개선효과와 기억력이 검증되었다
2. 뇌세포를 파괴하는 B-AMLYOID를 정상수준으로 유지되었다
3. ANTI-PLASMIN의 작용으로 혈액응고를 풀어주어 정상 수치 유지됨을 보았다
4. 염증반응의 조절기능이 향상되었다
5. 혈관 확장 능력의 회복과 혈액 흐름의 증가가 현저하게 개선됨을 보았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전단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one stop

LA서 이민개혁 단식기도, 한인교계도 참여



LA의 사회 및 종교 지도자들이 이민법 개혁을 촉구하는 금식에 돌입하고 있다. 사진 제일 좌측에 KCCD의 박종대 이사장, 임혜빈 회장 등이 보인다.

워싱턴DC에서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40일 단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LA에서도 커뮤니티의 지도자들이 24시간 금식을 했다. 호세 고메즈 대주교, 마크 리들리-토마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노동 사무총장, 앨런 로텐버그 상공회의소장 등은 다운타운에 위치한 천사들의

모대성당에 26일 모여 금식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시민들과 종교계 지도자들도 참여했으며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KCCD의 임혜빈 회장, 박종대 이사장, 동산교회 한기형 목사 등이 참여했다. 고메즈 대주교는 “붕괴되어 버린 이민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이민자

가정들은 추수감사절에도 만나지 못한다”고 말하며 “성령께서 의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겠다”고 말했다. 두라조 사무총장은 “우리의 금식이 이 문제 해결에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416명 눈뜨고 4408명 진료



비전케어 미주법인이 11월 27일 열린문장로교회에서 후원이사회 및 2013년 사역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제3세계에서 무료 개인 봉사 선교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국제실명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주법인(이사장 김용훈 목사)이 11월 27일(수) 열린문장로교회에서 후원이사회를 열고 2013년 사역보고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개안수술 416명, 기타환자 1839명 등 총 4408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는 미주법인이 설립됐던 2010년(2번의 캠프, 34명의 자원봉사자, 973명의 외래환자, 202명의 개안수술)과 비교할 때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1부 예배는 김기우 장로의 사회, 이병인 장로의 기도, 김용훈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훈 목사는 마태복음 20장 28-34절을 본문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섬김의 삶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재정보고에 의하면 올해 총 수입은 \$96,799.35, 총지출은 \$90,854.82였다. 김진아 총무는 “후원받은 약품과 수술 및 소독 기계를 소매 가치로 계산하면 70만불 가량의 수입이 더 있었던 셈”이라며, “후원자들을 통해 필요한 만큼 꼭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사역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같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했다.

김 목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과 섬기는 삶은 분리될 수 없다. 효율성을 따지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고 공훈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강조하셨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써 주시는 것이 영광이며 특권”이라며, “앞으로의 사역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했다.

비전케어 미주법인은 2014년에도 멕시코, 모로코, 모리타니아, 과테말라, 키르키스탄 지역에서 무료 개인수술 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 비전케어는 최근 제25회 아산상(의료봉사부문)을 수상했다. 이날 모임에 직접 참여한 김동해 원장은 비전케어의 지난 사역을 총정리하며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들을 미주법인 이사들과 나눴다.

김동해 원장은 “그동안 비전케어가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143차 무료 개인수술 캠프를 진행했다. 그동안 12,000명 가까이 백내장, 사시수술을 했다. 12년간 488명의 의사들이 참여해 87,000명의 환자들을 진료했다. 19,000여개의 안경을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2억 8천만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살고 있다. 그 중에서 80% 가까이는 수술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비전케어는 앞으로도 보지 못하는 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부 사역보고는 김진아 총무의 사회, 이사장 김용훈 목사의 인사, 부이사장 김기우 장로의 사역보고, 김진아 총무의 재정보고, 김동해 원장(한국 비전케어 대표)의 2013년 사역보고 및 2014년 사역계획 발표, 김용훈 목사의 폐회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비전케어 미주법인은 모로코(5월), 모리타니아(5월), 과테말라(8월, 비전케어 서부와 협력), 키르키스탄(10월, 서울 비전케어와 협력) 등 총 4차례 캠프를 실시했다. 올해 캠프에는 안과의사 16명, 의사(소아과, 내과) 4명, 간호사 20명 등 총 108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으며,

조요한 기자

미주총연, 제25차 차세대위원회 컨퍼런스

미주한인총연합회(총회장 이정순) 제25차 차세대위원회 컨퍼런스가 지난 11월 23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16개 도시 한인회에서 34명이 참석했다.

본 민단과 미주총연 지원금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미주총연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도록 이웃 실태를 정확히 한국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총연 역사를 책자로 발행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 관련 법안 H.R.1771, H.R.1812의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의 시간도 있었다.

이정순 총회장은 “우선적으로 2세 병역 및 위안부 일본 규탄 문제, 북한 인권실태 보고 등을 중점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면서 “2백 50만 한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인 정치인을 미국 정계에 진출시키기 위해 대선 선거인 등록 및 후원금 모금 등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행사에서는 KCCD 임혜빈 회장을 초청해 연방 및 주정부로부터 펀드 조성 방법, 인력 증진, 네트워킹 등에 관한 특강시간을 갖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정순 총회장은 “현재 조지아 주 연방상원의원에 도전 중인 제24대 유진철 전 총회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총연은 물론 전 회원이 일심단결해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말자”며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정순 총회장은 뉴욕주 나스카운티로부터 소수민족 문화 활동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요한 기자

김길영 차세대 컨퍼런스 준비위원장은 “1977년부터 본격적인 총연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아직까지 총연의 50년 역사를 한 곳에 모아 놓은 자료가 없어 매우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정섭 기아대책 회장, 혈액암으로 소천

보스턴서 시신 운구 후 내주 초췌 장례 예정



고 정정섭 회장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정정섭 회장이 28일 오후 3시 향년 72세로 미국 보스턴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혈액암이 악화돼 소천했다.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전했다. 올해 초 정 회장은 몸이 좋지 않아 건강검진을 받다가 혈액암을 발견하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왔었다. 정정섭 회장은 고려대 재학 중 졸업반 때 CCC 김준근 목사를 만나 신 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1989년 한국국제기아대책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1998년부터 회장을 맡아 2005년에는 국제기아대책 부총재를 맡기도 했다. 한국국제기아대책은 당시 한국에

서 해외로 원조를 하는 첫 NGO로 창립됐다. 남한에 있는 NGO 중 처음으로 북한을 돕기 시작해 농업개발지원 사업을 펼쳤으며 해외에 청년봉사단 파견, 국내 결식아동돕기 등을 구호활동을 하고 있다.

정 회장은 194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66년부터 23년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일하다 일본 선교를 위해 퇴직했지만 멘토 윤남중 목사의 제안으로 기아대책에 참여했다. 오상아 기자

기아대책 측은 정 회장이 지난 10월 혈액암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갔다 치료를 받던 중 병세가 악화돼 현지 시간 새벽 1시 가족들이 지켜보는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상경추 교정

경추 교정

척추 교정

체형 교정

관절염

자세 교정

허리 디스크 교정

골반 교정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뺏어진 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뼈긋하여 허리가 아픈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닦!

원장 정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특진안내

- ▶ 증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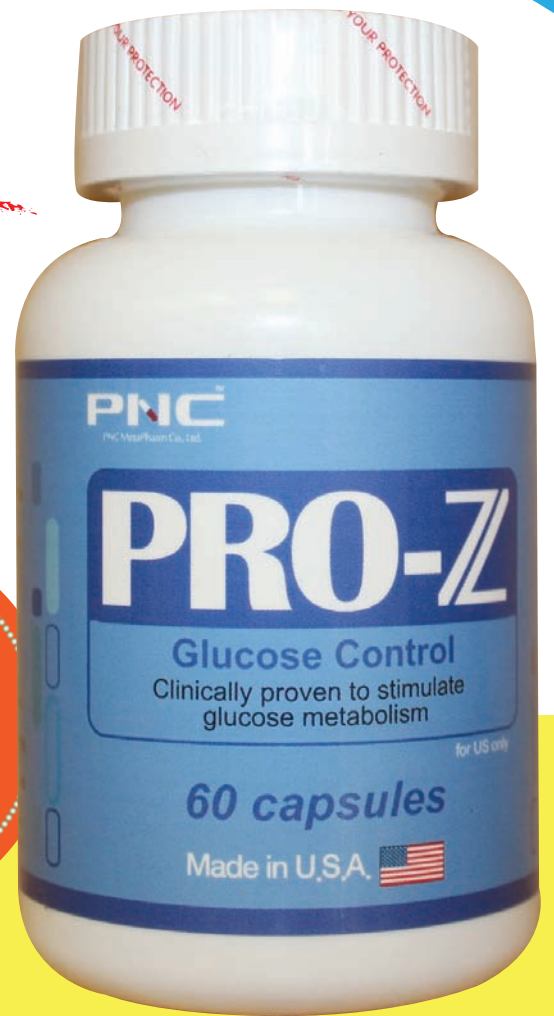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T. 213)219-2739, 323)737-378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신제품
소비자가 \$76
* 한국에서는 \$120에 판매중

!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개선을 PRO-Z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 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재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프로지 효능사례

박 OO 장로(당뇨 15년) :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1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걸기 불편했는데 붓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 졌습니다.

장 OO 목사(당뇨 40년) :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2달간 복용하니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 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3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 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 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이 OO 집사(전립선) :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2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 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정 OO 집사 :

몸이 늘 피곤하고 무겁고 입안에 입병이 자주 났었는데, 프로지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알씩 한달 정도 먹고 나니 피곤하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덜해졌습니다. 4개월 정도 먹고 있는 지금은 입병도 거의 안 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제 몸에 부족했던 아연이 보충이 되니 만성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을 하며 주위 분들에게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 FDA에 치료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업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 복용시 췌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확신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621 S. Virgil ave, Suit 260
Los Angeles CA 90005
프로지 셀러(seller) 모집중

213.434.1170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